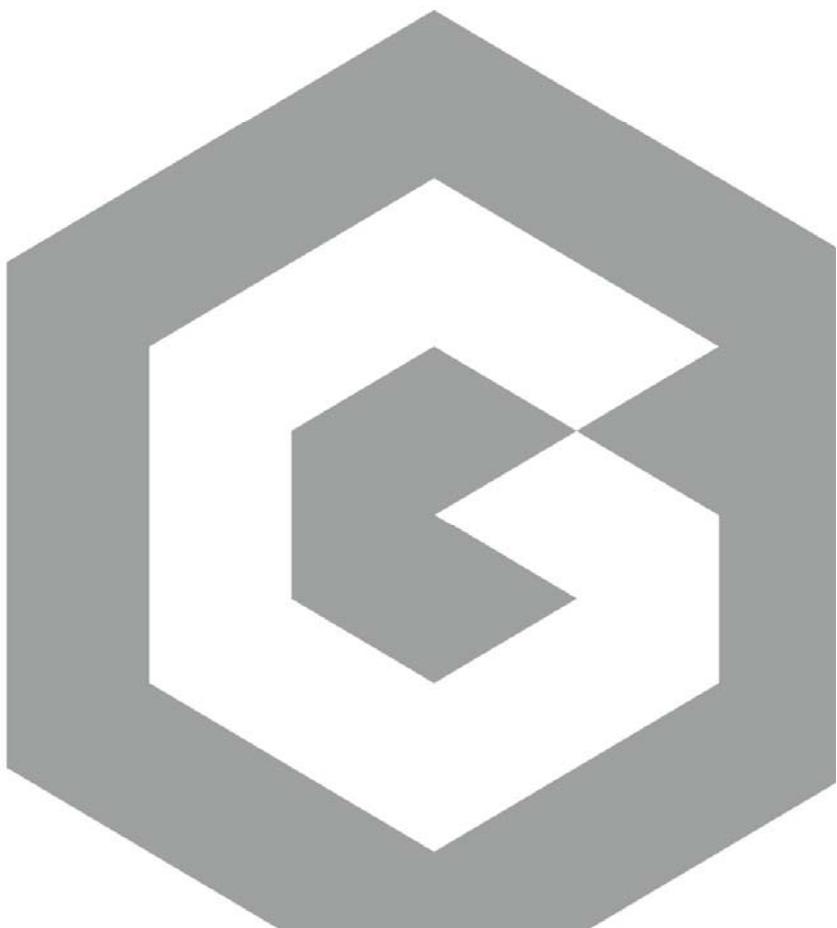


정책연구보고 2024-01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책임 |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연구진

연구 책임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24-01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와 발전 방안

발행일 2024년 7월

발행인 대표이사 원미정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고 법률로 명시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 복지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04년 경기광역자활센터를 개소하고, 자활사업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의 근로 역량 증진, 자활기업 창업 지원, 경기도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등 관련 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다회용기 세탁사업, 깔그미사업 등 경기도 상황에 부합하는 일자리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자활사업의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와 결과는 살펴보았으나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체적인 성과와 한계 등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자활사업 추진 이후 제도적 변화의 경험, 자활기업의 성과 및 한계, 그리고 향후 자활기업의 추진 방향과 발전 방향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자활기업의 성과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경기도 자활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자활기업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에 유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방안, 자활기업의 관리 체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업지원부에게 감사드리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연구 참여자분들,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요약

1.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자활사업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으로 시작되었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도입되었음
- 경기도는 2004년 경기광역자활센터 개소 이후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였음
-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후 다양한 변화와 함께 자활사업의 역할, 기능,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자활기업은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자활기업은 유지율 저하, 인력의 낮은 근로능력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자활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존재 의미를 잃을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자활기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경기도 자활기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
- 연구 내용은 ①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및 제도 변화, ②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③ 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방안임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자활사업 현황 및 제도 변화 관련 문헌 연구
-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여 자활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적합한 지표 설정.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자활기업의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2. 경기도 자활사업 제도 변화와 현황

□ 자활제도 변화

○ 자활사업의 개념

- 저소득계층의 자활 지원, 근로역량 배양, 일자리 제공,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소득 증대,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 목적

○ 자활사업의 운영체계

- 4층 체계로 구성
- 자활 행정체계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사업 총괄 관리
 - 경기도 및 시·군: 자활사업 총괄 시행
 - 읍·면·동: 조건부수급자 관리
- 자활인프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지원을 위한 연구, 교육, 사업 개발·평가
 - 광역자활센터: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 연계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저소득층 취업지원

○ 자활사업의 변화

- 법제 변천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취로구호사업 실시
 - 1982년 「생활보호법」 전면 개정: 취로구호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변경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자활사업 추진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운선지원제도 개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등

□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일반현황

- 지역자활센터: 33개 운영, 종사자 463명, 참여자 6,482명, 자활기업 177개, 종사자 2,190명

- 참여자 구성: 일반수급자 73%, 차상위계층 8.1%, 저소득층 18.9%
- 자활사업 유형: 자활근로사업단: 424개, 6,482명 참여
- 자활기업: 177개, 2,190명 참여

○ 자활사업단 현황

- 남성의 참여 비율이 높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의 참여 비율이 높음
- 시장진입형 사업단은 도소매업, 운수업, 유통매장, 음식점의 비중이 높음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특례 > 차상위계층 순으로 참여 비중이 높음
- 사회서비스 사업단 중 임가공에 종사하는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매출도 높게 나타났음

○ 자활기업 현황

- 사회형 자활기업은 49개소 1,716명, 자립형 자활기업은 128개소 474명이 참여하고 있음
- 자활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소 > 배송 > 돌봄의 순으로 나타났음
- 주식회사 형태 자활기업의 참여 인원과 매출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기업의 조직 유지 기간은 3년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10년 이상인 조직의 비율도 30% 이상으로 나타남
- 자활기업에 종사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현황은 감소하고, 일반인의 현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활기업 종사자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3년 미만으로 나타났음

3. 경기도 자활사업 성과 분석

□ 성과분석 틀

-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SVI, SPC, SROI 등의 방법론들이 대표적임
 -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비용-편익 분석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과를 화폐단위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 및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비교함
 - TIMM(Total Impact Measurement & Mngement): 사회부문, 환경부문, 조세부문 및 경제부문의 4대 분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결과를 활용해서 개선·보완을 진행함

-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 System): 점수 평가 혹은 등급제 시스템에 기반한 분석 방법론으로 조직,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평가방법론임
- K-ESG: 영역, 범주, 진단항목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영역 61개 세부항목 및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일반현황,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측정·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구분되며, 각 지표 별 점수를 합산하여 4등급 체계로 구분하여 판정
-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매뉴얼 지표: 자활, 자립, 협동, 연대를 주요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음

○ 경기도 자활사업 성과 분석 체계 및 지표

- 한국자활기업협회의 “자활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와 “사회성과측정체계(SVI)”를 자활기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 자활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배치하고, 각 지표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함
- 사회적 성과의 비중도를 높이는 지표로 구성하며,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비중을 동등하게 구성하였음
-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월평균 종사자 임금, 사회공헌 활동
- 경제적 성과 측정 지표: 자활기업의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의 매출 성과,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

□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 경기도 자활기업 분석 개요

-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추출한 2022년 및 2023년 경기도 자활기업 176개 기업 분석

○ 경기도 자활기업 일반 현황

- 2022년 경기도 자활기업은 총 176개소, 종사자는 총 2,682명으로 나타났고, 2023년 경기도 자활기업은 총 176개소, 종사자는 총 3,881명으로 나타났음
 - 고용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자립형 자활기업(2022년 30.7%, 2023년 30.1%)이 사회형 자활기업(2022년 69.3%, 2023년 69.9%)보다 많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평균 운영기간은 2022년 약 8.8년, 2023년 약 8.3년으로 나타났음
 - 평균 운영기간은 전국 자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소 관련 자활기업이 2022년과 2023년 모두 44개소(25.0%)로 가장 많았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

-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고용 비율은 약간 감소함
 - 자립형 자활기업이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음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통 및 판매, 음식점, 배송 및 운전 분야에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약계층 종사자 월평균 임금
 - 수급자의 월평균 임금은 증가하였음
 - 사회형 자활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더 높았음
 - 2023년에는 운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배송 및 운전 분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회공헌 활동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감소하였음
 - 사회형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횟수 및 금액이 많았음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사회공헌 횟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 청소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공헌 횟수가 증가하였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사회공헌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사회공헌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

- 일자리 창출
 -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수는 2023년 약 1.45배 증가하였음
 - 주로 기타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고용이 증가하였음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자체 고용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전체 고용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 성과

-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을 2023년 약 1.05배 상승하였음
- 사회적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자립형 자활기업보다 높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총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사회서비스 분야의 매출액이 가장 높았고, 음식점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생산성

- 경기도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에 약 1.09배 상승하였음
- 자립형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노동생산성은 차이가 없었음
- 경기도 자활기업 업종 중 유통 및 판매, 집수리, 배송 및 운전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FGI 결과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재정적 성과 외에도 지속가능성, 사회공헌 활동, 급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 인건비 지원 및 인턴 제도 기간 연장, 교육 확대, 자활기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 제고, 자활기업 홍보, 규모별 차등 지원 방안이 필요함

4. 결론

□ 정책 제언

○ 취약계층의 자활기업 유입 확대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자로서 자활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자활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확대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자활기업에 유입되는 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안정적 인력 유입을 위해 자활기업 인턴 제도 확대 시행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지원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매출액, 고용, 임금 및 사회공헌 활동도 증가하였음
- 따라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기간, 자활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간접적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활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채널 마련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지원
 - 경기도 자활기업의 업종별로 자체 고용 인력 구성, 월평균 임금, 매출액 등이 상이하기에 업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일반 자활기업 지원 기준이 아닌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 자활기업 업종 다양성 기반 강화
 - 특정 영역에 집중된 자활기업 업종의 다양성 확보하여 동일 업종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호된 시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함
- 자활기업 관리 체계 지원
 - 영세한 자활기업을 위해 인사, 세무, 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인력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 자활기업 재무·회계지원 사업(가칭)’ 추진 필요
- 자활기업 홍보 강화
 - 자활기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활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함
 - 공공분야의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민간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자활기업, 자활기업 성과 분석 틀, 자활기업 발전 방안

목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5
II 	경기도 자활사업 제도 변화와 현황	9
	1. 자활제도 변화	9
	2.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13
III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31
	1.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분석 틀	31
	2.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55
	3. 자활기업 관련 전문가 FGI	86
IV 	결론	97
	1. 주요결과	97
	2. 정책 제언	102
	참고문헌	107

Ⅰ 표 차례 Ⅰ

〈표 II-1〉 자활사업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	11
〈표 II-2〉 자활사업 제도 변화 주요 내용	12
〈표 II-3〉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14
〈표 II-4〉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15
〈표 II-5〉 경기도 자활사업 유형별 현황	16
〈표 II-6〉 지역별 자활사업 참여 현황	17
〈표 II-7〉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현황	18
〈표 II-8〉 시장진입형 사업단 업종 현황	19
〈표 II-9〉 시장진입형 사업단 수급유형별 참여자 현황	20
〈표 II-10〉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현황	21
〈표 II-11〉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수급유형별 참여자 현황	22
〈표 II-12〉 인턴형 사업단 현황	23
〈표 II-13〉 복지도우미형 사업단 현황	23
〈표 II-14〉 자활도우미형 사업단 현황	23
〈표 II-15〉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사업단 현황	23
〈표 II-16〉 근로유지형 사업단 현황	23
〈표 II-17〉 시간제자활근로 사업단 현황	24
〈표 II-18〉 청년자립도전형 사업단 현황	24
〈표 II-19〉 게이트웨이 사업단 현황	24
〈표 II-20〉 자활기업 유형별 현황	25
〈표 II-21〉 자활기업 업종 현황	25
〈표 II-22〉 자활기업 유형별 종사자 및 매출 현황	26
〈표 II-23〉 자활기업 조직유지 기간 현황	26
〈표 II-24〉 자활기업 참여자 기초생활보장 구분 현황	27
〈표 II-25〉 자활기업 참여자 기초생활보장 구분 현황	27
〈표 III-1〉 SROI 적용을 위한 기본 원칙	32
〈표 III-2〉 SROI 방법론 적용 단계	33
〈표 III-3〉 TIMM 방법론의 적용 단계	34
〈표 III-4〉 GIIRS의 영역 및 주요 지표	35
〈표 III-5〉 K-ESG 진단항목 및 지표	39
〈표 III-6〉 GRI G4가이드라인의 범주와 내용	41

〈표 III-7〉 G4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지표 내용 42

〈표 III-8〉 사회적가치지표(SVI) 구성체계 및 지표 48

〈표 III-9〉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49

〈표 III-10〉 경기도 자활기업 개소 및 종사자 56

〈표 III-11〉 자활기업 유형 58

〈표 III-12〉 자활기업 운영기간 58

〈표 III-13〉 자활기업 업종 59

〈표 III-14〉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비율 차이 62

〈표 III-15〉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취약계층 비율 차이 63

〈표 III-16〉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취약계층 비율 차이 63

〈표 III-17〉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 66

〈표 III-18〉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 67

〈표 III-19〉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 68

〈표 III-20〉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차이 71

〈표 III-21〉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차이 72

〈표 III-22〉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차이 73

〈표 III-23〉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상관관계 분석(2022) 74

〈표 III-24〉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상관관계 분석(2023) 74

〈표 III-25〉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차이 76

〈표 III-26〉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차이 77

〈표 III-27〉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차이 78

〈표 III-28〉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상관관계 분석(2022) 80

〈표 III-29〉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상관관계 분석(2023) 80

〈표 III-30〉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81

〈표 III-31〉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82

〈표 III-32〉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83

〈표 III-33〉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 84

〈표 III-34〉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 85

〈표 III-35〉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 86

〈표 III-36〉 FGI 참여자 특성 87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Ⅱ-1〉 자활사업 추진체계	10
〈그림 Ⅱ-2〉 자활사업 추진체계	14
〈그림 Ⅲ-1〉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61
〈그림 Ⅲ-2〉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65
〈그림 Ⅲ-3〉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70
〈그림 Ⅲ-4〉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수	75
〈그림 Ⅲ-5〉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매출액	81
〈그림 Ⅲ-6〉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	84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한국 사회에서 자활사업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
 - 자활사업은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 생계의 곤란을 겪는 신빈곤층과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에게도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생활보장과 자립기반조성이라는 두 목적을 가지고 등장함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함께 강화된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표로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에 취업을 유인하는 정책 목표와 직업 훈련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노동역량을 향상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여 취업률을 높이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출발함(신원식·김현주, 2009)
- 경기도는 2004년 경기광역자활센터를 개소하고, 자활사업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자활사업 대상자의 근로 역량 증진, 자활기업 창업지원, 경기도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등 관련 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함
 - 경기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다화용기 세탁사업, 깔그미 사업 등 경기도 상황에 부합하는 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여 자활사업의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
- 최근 자활사업은 제도화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활사업의 역할과 기능, 성과 등에 대한 모호성 관련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자활사업은 제도화 이후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내용 등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제도의 등장으로 기존 제도가 대체되는 방식이 아닌 제도 구성요소가 재배열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자활사업은 대상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논의가 아닌 자활사업의 역할과 기능, 성과 등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이소정 외, 2012; 최상미, 2021)
- 즉, 현재의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노동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인지? 참여자의 탈수급을 실현해 복지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인지? 참여자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자활기업은 1990년대에 수도권 빈민지역에서 시작된 노동자협동조합 조직 운동인 생산 공동체 운동에서 출발하였고,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화 과정을 거쳐 자활기업이 특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중심의 창업 조직이자 일자리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안수영, 2015)
 - 자활기업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일자리임
 - 자활기업은 장기적으로 일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갖추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자활기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안적 경제조직이기(김정원 외, 2012), 근로 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자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자활사업이 가진 취지와 의미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자활기업은 여러 모순이 존재함
 - 자활기업의 유지율은 낮아지고 있으며(김명화, 2016). 광역 단위나 전국적으로 확대된 자활기업이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자활기업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을 확장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음(서광국, 2021).
 - 자활기업은 인력의 낮은 근로 능력, 밀어내기식 창업, 성과중심 평가, 업종 개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김명화, 2016)
- 자활기업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 존재 의미와 역할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활기업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각 자활기업의 정확한 특성,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경기도 자활기업 또한 이러한 논의 흐름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경기도 자활사업의 총체적인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것임
 - 경기도는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 결과를 통해 성과에 대한 부분은 살펴보았으나, 경기도 자활사업의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와 한계 등의 검토는 제한적임
 - 또한, 자활사업을 통해 설립된 자활기업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한 분석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활기업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의 향후 방향 모색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자활기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 등을 파악하고, 향후 경기도 자활기업의 활성화 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자활사업 추진 이후 제도적 변화의 경험, 자활기업의 성과 및 한계는 무엇이고, 향후 자활기업의 추진 방향, 발전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자활기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경기도 자활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음
 - 자활사업은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환경을 고려한 정책의 수정·보완의 과정은 필요함
 - 다만, 전국의 자활기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라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함
-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①경기도 자활사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②경기도 자활기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분석, ③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첫째,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및 제도 변화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장과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 둘째, 경기도 자활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활성화한 자활기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셋째, 경기도 자활기업에 대한 세부 성과, 경기도 자활기업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경기도 자활기업의 발전 방안, 경기도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범위

- 사업·정책 분석의 시간적 범위
 -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은 2022년 및 2023년을 기준으로 진행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행정구역 전역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자활사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자활사업 추진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의 변화는 ‘경기도’로 한정하여 현황 및 제도의 변화를 경기도의 범위 내에서 분석
 - 다만, 자활사업의 제도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중앙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중앙정부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경기도 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 변화를 분석·기술
 - 경기도 자활기업의 성과 분석
 -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를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
 -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의 범위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 과제에 따른 개선 방안, 경기도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의 핵심인 경기광역자활센터 및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자활사업의 발전적 방향 설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을 제언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자활사업 현황 및 자활사업의 제도 변화 등 관련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
 - 문헌연구 방법은 이미 수집된 자료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관련 내용의 대한 정리 및 분석이 가능하므로 자활사업의 현황, 제도변화, 특징 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함
 - 제도의 변화는 변화 속도, 주체,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제도가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게 됨. 특히, 자활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요인의 재구조화 등을 통해 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자활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수용성이 시·군과 자활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틀 검토

- 자활기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SVI(Social Value Index), SPI(Social Performance Incentive), 한국자활기업협회의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등 자활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표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지표를 설정

□ 경기도 자활기업 현황 및 성과 분석

- 경기도 내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분석
 - 경기도 내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포괄하는 성과에 대한 진단과 분석 진행
 - 사회적 성과로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월평균 종사자 임금, 사회공헌 활동을 분석
 - 경제적 성과로 일자리 창출, 매출성과, 노동생산성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자활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 분석 틀 및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자활기업의 성과 및 한계, 실태 등 분석 후 향후 경기도 자활기업의 발전 방안 도출 시 의견수렴 체계로 활용

II

경기도 자활사업 제도 변화와 현황

1. 자활제도 변화
2.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II 경기도 자활사업 제도 변화와 현황

1. 자활제도 변화

1) 자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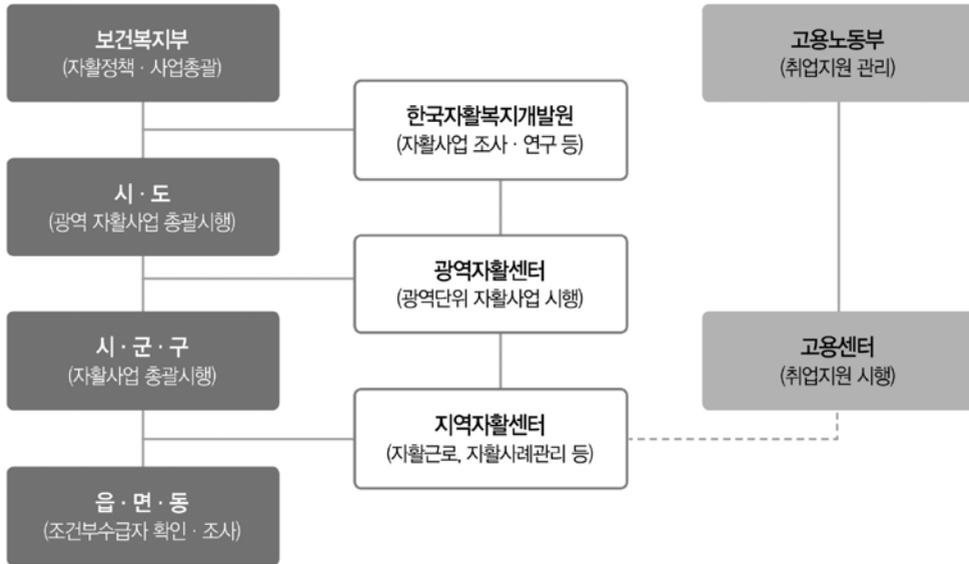
□ 자활사업의 개념

- 자활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자활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음(보건복지부, 2023)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자활사업의 운영체계

- 현행 자활사업의 운영체계는 4층 체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각 계층의 주체들 간 역할의 상호연계를 통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
 - 자활사업의 기본적인 구조는 행정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기관 등이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그림 II-1〉 자활사업 추진체계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자활사업 안내」

- 자활사업의 주요 추진 주체는 자활행정체계, 자활인프라, 연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활행정체계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전달체계를 의미하며, 최상의 행정체계인 보건복지부는 자활정책 및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함.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자활사업에 대한 총괄 시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읍·면·동은 조건부수급자 관리 역할을 담당함(보건복지부, 2023)
 - 자활인프라는 실질적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활사업 등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지원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의 개발·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 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 31개 시·군의 지역자활센터는 대상자 사례관리,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등의 추진을 통해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의 기회와 자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보건복지부, 2023)
 - 연계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으로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통해 근로활동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표 II-1〉 자활사업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

구분		역할	역할 수행 내용
자활 행정 체계	보건복지부	자활정책·사업 총괄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시·도 시·군·구	자활사업 총괄시행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 참여자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읍·면·동	조건부수급자 관리	-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자산조사 제외)
자활 인프라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자활사업 수행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광역자활센터		- 광역단위 저소득층에 대한 취·창업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연계 기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관리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추진
	고용센터	취업지원 시행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자활사업 안내」

□ 자활사업의 변화

- 자활사업의 시작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됨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1982년 「생활보호법」 전면 개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시행 등 법제의 변화에 따라 관련 자활사업 등 정책의 점증적 확대가 진행됨

〈표 II-2〉 자활사업 제도 변화 주요 내용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1961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 제정
1974		•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1975		• 취로구호사업을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0		•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을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2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 생활보호에 사업에 자활보호, 교육보호 추가 • 보호대상자를 영세민·준영세민에서 저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 변경 •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 실시 • 생활보호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생업자금 융자제 시행(83년)
1985		• 취로구호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3		•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를 노동부에 이관하고 대상자만 추천
1994		• 취어사업의 책임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1996		•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전국 5개소)
1997		• 생활보호법 조문 내 읍·면·동 규정 신설
1998		• 저소득층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취로사업 재추진
2000		• 읍·면·동 50개소 확대 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제정 '99년) -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2004		• 광역자활센터(3개소) 시범사업 추진, 자활근로사업 유형 다양화
2005		•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
2006	• 자산형성지원(IDA) 도입 추진 TF 운영	
2008	• 중앙자활센터 설립·운영,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	
2009	•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 희망리본사업 실시	
2010	• 희망키움통장 실시, 지역자활센터 247개소 운영	
2011	• 희망리본사업 확대, 희망키움통장 확대	
2012	• 자활사례조정회의의 시범사업 확대,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 광역자활센터(7개소) 법적근거 마련,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2013	•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 자활근로시범사업단 추진 희망리본사업 전국확대, 내일키움통장 도입,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광역자활센터 확대(10개소)	
2014	• 희망리본사업 확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광역자활센터(14개소) 확대	
2015	• 희망리본사업 고용노동부 이관	

〈표 II-2〉 자활사업 제도 변화 주요 내용(계속)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20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	• 자활장려금 사업 종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 종료, 조건부수급자 범위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 개정
2017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연계 등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탈락자 등에 대한 조건부과 및 자활근로 참여 •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제도 도입
2018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 추진
2019		•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자활기금의 중앙기금화 추진, 광역자활센터 확대(15개소)
2020		• 청년저축계좌 도입,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2021		• 조건부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행, 광역자활센터 확대(16개소)
2022		• 자활장려금 별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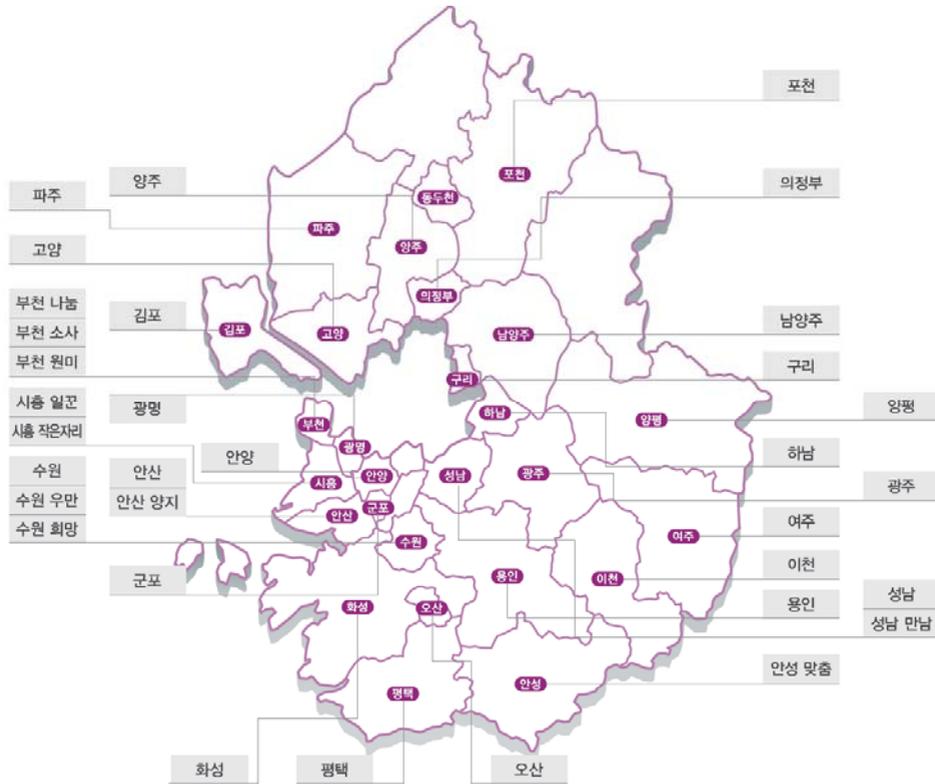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자활사업 안내」를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

2.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1) 일반현황

-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수는 33개 운영 중이며, 종사자 및 참여자 수는 각각 463명, 6,482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기도 내 자활기업 수는 177개소이며, 자활기업 종사자는 2,19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경기광역자활센터, 2023)

〈그림 II-2〉 자활사업 추진체계



자료 : 경기도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약 73%는 일반수급자 등으로 근로활동 및 기회 보장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수급자 등 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 비율은 각각 8.1%, 18.9%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3〉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합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소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자활특례		
8,672명	6,329명	2,438명	3,167명	724명	705명	1,638명

주1 : 자활사업참여자 = 자활기업 종사자 + 자활사업 참여자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구분하면 다음 <표 II-4>와 같음

<표 II-4>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업수	참여자 수							센터당 평균 사업수	센터장 평균 참여자수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	저소득 층		
			소계	일반 수급	조건부 수급	자활 특례				
계	601	8,672	6,329	2,438	3,167	724	705	1,638		
		100	73.0	28.1	36.5	8.3	8.1	18.9		
자활 근로	424	6,482	5,851	2,288	2,882	681	630	1	12.8	196.4
		100	90.3	35.3	44.5	10.5	9.7			
자활 기업	177	2,190	478	150	285	43	75	1,637	5.4	66.4
		100	21.8	6.8	13.0	2.0	3.4	74.8		

자료 : 경기도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경기도 자활사업의 유형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유형 > 자활기업 > 시장 진입형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참여비중은 사회서비스 유형 > 기타유형 > 자활기업 > 시장진입형 유형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유형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에 포함되지 않는 인턴형, 복지도우미형, 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사업, 게이트웨이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참여자의 참여 비중은 큰 것으로 나타남(경기광역자활센터, 2023)

〈표 II-5〉 경기도 자활사업 유형별 현황

구분		사업 수	참여자 수(명)	매출액(원)
합계		601	8,672	133,319,455,739
자활근로사업	소계	424	6,482	28,274,298,739
	시장진입형	134	1,797	18,894,053,476
	사회서비스형	202	2,358	8,571,001,449
	인턴형	6	41	-
	복지도우미형	5	26	-
	자활도우미형	10	22	-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5	23	-
	근로유지형	7	176	5,897,757
	시간제자활근로	10	60	51,184,604
	청년자립도전사업	13	126	747,479,217
	게이트웨이	32	1,853	4,682,236
	자활기업	177	2,190	105,045,158,000

자료 : 경기도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시·군별 자활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6개 지역 3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급자 등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음(경기광역자활센터, 2023)

〈표 II-6〉 지역별 자활사업 참여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기타사업유형			
지역	센터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합계	33	134	1,797	202	2,358	88	2,327	177	2,190
경기도	광역	-	-	-	-	-	-	5	46
고양시	고양	4	42	7	34	2	103	5	41
광명시	광명	4	43	6	42	2	49	9	28
광주시	광주	3	20	6	52	5	42	5	35
구리시	구리	4	37	5	62	2	83	9	256
군포시	군포	3	75	3	30	1	32	1	11
김포시	김포	1	9	7	144	-	-	2	6
남양주시	남양주	4	39	8	86	2	75	7	219
부천시	부천나눔	7	61	6	68	4	75	8	69
	부천소사	7	91	4	71	2	47	8	22
	부천월미	6	101	6	97	2	50	7	32
성남시	성남	6	99	6	62	4	81	4	15
	성남만남	8	132	4	46	4	98	8	52
수원시	수원	4	76	8	92	2	185	6	100
	수원우만	3	51	6	78	3	143	4	70
	수원희망	2	30	7	93	3	97	2	10
시흥시	시흥일꾼	1	23	7	122	3	42	7	27
	작은자리	3	48	10	89	1	37	7	290
안산시	안산	4	36	2	25	3	68	5	70
	안산양지	3	43	3	44	4	65	5	71
안성시	안성맞춤	4	67	3	40	3	16	1	5
안양시	안양	5	57	6	83	3	80	8	30
양주시	양주	7	67	3	27	1	20	4	15
양평군	양평	1	9	6	19	4	14	2	9
여주시	여주	5	70	2	8	2	32	3	16
오산시	오산	4	47	9	118	1	71	5	14
용인시	용인	5	84	4	66	4	38	4	13
의정부시	의정부	3	47	8	94	6	135	5	17
이천시	이천	3	56	5	58	2	56	2	-
파주시	파주	1	11	8	79	2	64	8	442
평택시	평택	7	76	20	215	6	318	5	75
포천시	포천	6	50	4	29	2	18	4	20
하남시	하남	2	31	6	79	2	31	4	38
화성시	화성	4	69	7	106	1	62	8	26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2) 자활사업단 현황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여비율이 높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7〉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현황

구분	합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	21~30	31~40	41~50	51~60	61~
합계	6,482	3,486	2,996	20	489	501	1,212	2,352	1,908
	100	53.8	46.2	0.3	7.5	7.7	18.7	36.3	29.4
시장진입형	1,797	949	848	0	135	121	374	712	455
사회서비스형	2,358	1,223	1,135	3	91	163	394	843	864
인턴형	41	16	25	0	6	2	12	9	12
복지도우미형	26	3	23	0	7	4	4	8	3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23	7	16	0	0	0	4	4	15
근로유지형	176	132	44	1	5	10	14	71	75
시간제자활근로	60	19	41	0	8	6	12	18	16
청년자립도전사업	126	50	76	5	91	29	1	0	0
게이트웨이	1,853	1,083	770	11	141	162	390	681	468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시장진입형 사업단 참여자의 주요 업종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운수업, 유통매장, 음식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해당 업종의 대부분이 노동력에 기반한 업종으로 영업활동량이 증가할수록 관련 노동력의 필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이 상대적으로 참여인력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음(표 II-8 참조)
-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수급유형별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특례 >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나타남
 - 수급유형별 참여현황의 주요 참여 업종 또한 도소매업, 운수업, 유통매장, 음식점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II-9 참조)

〈표 II-8〉 시장진입형 사업단 업종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총계		134	100	1,797	100	18,894,053	100
서비스업	집수리	3	2.2	29	1.6	270,544	1.4
	돌봄/간병	4	3.0	40	2.2	387,601	2.1
	청소	8	6.0	143	7.9	692,083	3.7
	다회용기세척	4	3.0	81	4.5	588,853	3.1
	세탁	2	1.5	17	0.9	99,737	0.5
	인력파견	1	0.7	12	0.7	94,382	0.5
	홍보물 미디어	1	0.7	2	0.1	24,578	0.1
	소계	23	17.2	324	18.0	2,157,778	11.4
운수업	양곡배송	10	7.5	136	7.6	1,570,766	8.3
	일반/거점택배	16	12.0	215	12.0	1,398,988	7.4
	소계	26	19.4	351	19.6	2,969,754	15.7
음식점업	음식점	20	14.9	257	14.3	3,976,468	21.0
	카페-공공	9	6.74	135	7.5	2,038,606	10.8
	카페-일반	5	3.7	33	1.8	235,008	1.3
	식품생산	7	5.2	98	5.5	2,284,526	12.1
	소계	41	30.6	523	29.1	8,534,608	45.2
제조업	생활용품생산	4	3.0	39	2.2	208,841	1.1
	공산품생산	1	0.7	3	0.2	23,240	0.1
	위탁생산	3	2.2	51	2.8	228,231	1.2
	소계	8	6.0	93	5.2	460,312	2.4
농업	축산물가공	1	0.7	8	0.4	28,715	0.1
	소계	1	0.7	8	0.4	28,715	0.1
도소매업	유통매장	34	25.4	488	27.1	4,706,366	24.9
	소계	34	25.4	488	27.1	4,706,366	24.9
기타	조경	1	0.7	10	0.6	36,520	0.2
	소계	1	0.7	10	0.6	36,520	0.2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9〉 시장진입형 사업단 수급유형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업내용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비율
			소계	일반 수급	조건부 수급	자활 특례			
총계		1,797	1,599	779	451	329	238	0	100
서비스업	집수리	29	25	11	10	4	4	0	1.6
	돌봄/간병	40	30	20	6	4	10	0	2.2
	청소	143	118	60	35	23	25	0	7.9
	다화용기세척	81	76	37	22	17	5	0	4.5
	세탁	17	13	6	5	2	4	0	0.9
	인력파견	12	11	6	4	1	1	0	0.7
	홍보물 미디어	2	2	2	0	0	0	0	0.1
소계		324	275	142	82	51	49	0	18.0
운수업	양곡배송	136	120	54	33	33	16	0	7.6
	일반/거점택배	215	187	84	51	52	28	0	12.0
	소계	351	307	138	84	85	44	0	19.6
음식점업	음식점	257	225	121	74	30	32	0	14.3
	카페-공공	135	110	61	30	19	25	0	7.5
	카페-일반	33	32	19	6	7	1	0	1.8
	식품생산	98	83	50	22	11	15	0	5.5
	소계	523	450	251	132	67	73	0	29.1
제조업	생활용품생산	39	36	22	7	7	3	0	2.2
	공산품생산	3	3	1	0	2	0	0	0.2
	위탁생산	51	43	24	9	10	8	0	2.8
	소계	93	82	47	16	19	11	0	5.2
농업	축산물가공	8	6	6	0	0	2	0	0.4
	소계	8	6	6	0	0	2	0	0.4
도소매업	유통매장	488	429	188	136	105	59	0	27.1
	소계	488	429	188	136	105	59	0	27.1
기타	조경	10	10	7	1	2	0	0	0.6
	소계	10	10	7	1	2	0	0	0.6

자료: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사회서비스 사업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최다 사업종류는 임가공(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대 참여인원 임가공업(27.9%), 최대 사업매출 임가공업(14.7)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은 22년 사업단 1개소당 참여인원은 임가공(19.3명) > 일반택배(14.2명), 자전거 대여(14.0명)으로 나타남
- 또한 1명당 최대 매출 규모는 양곡배송(15,008천원) > 카페-일반(9,022천원) > 식품생산(7,415천원)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10〉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총계	202	100	2,358	100	8,571,001	100
서비스업	집수리	4	2.0	26	1.1	110,380	1.3
	돌봄/간병	15	7.4	57	2.4	1,576	0.0
	청소	20	9.9	253	10.7	873,171	10.2
	다회용기세척	13	6.4	139	5.9	473,736	5.5
	세탁	12	5.9	134	5.7	537,238	6.3
	자전거 대여	1	0.5	14	0.6	-	0.0
	인력파견	1	0.5	2	0.1	2,260	0.0
	홍보물 미디어	2	1.0	24	1.0	28,518	0.3
	소계	68	33.7	649	27.5	2,026,789	23.6
운수업	양곡배송	1	0.5	1	0.0	15,008	0.2
	일반/거점택배	12	5.9	170	7.2	428,649	5.0
	소계	13	6.4	171	7.2	497,657	5.8
음식점업	음식점	9	4.5	100	4.2	606,665	7.1
	카페-공공	10	5.0	67	2.8	311,817	3.6
	카페-일반	11	5.4	79	3.4	712,776	8.3
	식품생산	7	3.5	53	2.2	393,000	4.6
	소계	37	18.3	299	12.7	2,024,258	23.6
제조업	생활용품생산	12	5.9	151	6.4	761,286	8.9
	공산품생산	4	2.0	43	1.8	237,527	2.8
	목공	2	1.0	13	0.6	51,356	0.6
	임가공	34	16.8	657	27.9	1,255,934	14.7
	소계	52	25.7	864	36.6	2,306,103	26.9
농업	농산물생산가공	9	4.5	115	4.9	291,902	3.4
	소계	9	4.5	115	4.9	291,902	3.4
도소매업	유통매장	14	6.9	175	7.4	1,189,773	13.9
	소계	14	6.9	175	7.4	1,189,773	13.9
기타	조경	1	0.5	12	0.5	12,401	0.1
	재활용	8	4.0	73	3.1	222,028	2.6
	소계	9	4.5	85	3.6	234,429	2.7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11〉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수급유형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업내용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비율
			소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자활특례			
총계		2,358	2,093	1,017	765	311	265	0	100
서비스업	집수리	26	22	7	11	4	4	0	1.1
	돌봄/간병	57	49	23	17	9	8	0	2.4
	청소	253	225	107	75	43	28	0	10.7
	다회용기세척	139	126	54	53	9	13	0	5.9
	세탁	134	122	54	49	19	12	0	5.7
	자전거대여	14	13	7	5	1	1	0	0.6
	인력파견	2	1	1	0	0	1	0	0.1
	홍보물 미디어	24	21	12	7	2	3	0	1.0
	소계	649	579	265	227	87	70	0	27.5
운수업	양곡배송	1	1	1	0	0	0	0	-
	일반/거점택배	170	152	79	51	22	18	0	7.2
	소계	171	153	80	51	22	18	0	7.2
음식점업	음식점	100	88	47	36	5	12	0	4.2
	카페-공공	67	61	29	27	5	6	0	2.8
	카페-일반	79	73	30	33	10	6	0	3.4
	식품생산	53	47	13	24	10	6	0	2.2
	소계	299	269	119	120	30	30	0	12.7
제조업	생활용품생산	151	134	53	51	30	17	0	6.4
	공산품생산	43	41	19	10	12	2	0	1.8
	목공	13	12	7	5	0	1	0	0.6
	임가공	657	571	300	192	79	86	0	27.9
	소계	864	758	379	258	121	106	0	36.6
농업	농산물생산가공	115	102	39	43	20	13	0	4.9
	소계	115	102	39	43	20	13	0	4.9
도소매업	유통매장	175	159	99	47	13	16	0	7.4
	소계	175	159	99	47	13	16	0	7.4
기타	조경	12	11	8	2	1	1	0	0.5
	재활용	73	62	28	17	17	11	0	3.1
	소계	85	73	36	19	18	12	0	3.6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12〉 인턴형 사업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 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계		6	100	41	100		
서비스업	인력파견	6	100	41	100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13〉 복지도우미형 사업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 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계		5	100	26	100		
서비스업	자활행정지원	5	100	26	100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14〉 자활도우미형 사업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 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계		10	100	22	100		
서비스업	자활지원	10	100	22	100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15〉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사업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 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계		5	100	23	100		
서비스업	복지시설지원	5	100	23	100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16〉 근로유지형 사업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 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계		7	100	176	100	5,898	
서비스업	자활지원	7	100	176	100	5,898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17〉 시간제자활근로 사업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 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계		10	100	60	100	51,185	100
서비스업	파견 등	10	100	60	100	51,185	100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18〉 청년자립도전형 사업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 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계		13	100	126	100	747,479	100
서비스업	인력파견	1	7.7	8	6.3	-	-
음식점업	카페-일반	2	15.4	28	22.2	148,259	19.8
	식품생산	1	7.7	9	7.1	33,100	4.4
제조업	생활용품생산	1	7.7	9	7.1	12,830	1.7
도소매업	유통판매	4	30.8	38	30.2	528,082	70.6
기타	기타	4	30.8	34	27.0	25,209	3.4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표 II-19〉 게이트웨이 사업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 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계		32	100	1,853	100	4,682	100
게이트웨이		32	100	1,853	100	4,682	100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3) 자활기업 현황

- 자활기업은 사회형 자활기업과 자립형 자활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기도 내 177개소 운영 중에 있음
 - 사회형 자활기업은 49개소 1,7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립형 자활기업은 128개소 474명이 참여하고 있음

〈표 II-20〉 자활기업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합계	개인 사업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형 자활기업	기업 수	49	-	32	-	9	8
	참여자 수	1,716	-	1,386	-	58	272
자립형 자활기업	기업 수	128	67	37	2	16	6
	참여자 수	474	222	155	7	67	23
합계	기업 수	177	67	69	2	25	14
	참여자 수	2,190	222	1,541	7	125	295

주1 : 사회형 자활기업은 법인, 만3년 이상, 5인 이상 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추출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자활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소 > 배송 > 돌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업종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1〉 자활기업 업종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집수리	청소	재활용	돌봄	카페	외식	세차	배송	기타	계
개인사업자	6	11	1	1	3	9	1	13	22	67
주식회사	13	25	2	9	1	1	1	10	7	69
유한회사	0	0	0	0	0	2	0	0	0	2
일반협동조합	4	3	0	3	1	1	1	6	6	25
사회적협동조합	1	2	0	4	0	1	0	2	4	14
합계	24	41	3	17	5	14	3	31	39	177
비율	13.6	23.2	1.7	9.6	2.8	7.9	1.7	17.5	22.0	100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자활기업의 사업체 유형별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참여 인원과 매출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2〉 자활기업 유형별 종사자 및 매출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사업 수	비율	인원	비율	매출액	비율
개인사업자	67	37.9	222	10.1	19,631,906	18.7
주식회사	69	39.0	1,541	70.4	59,383,574	56.5
유한회사	2	1.1	74	0.3	153,261	0.2
일반협동조합	25	14.1	125	5.7	10,344,422	9.8
사회적협동조합	14	7.9	295	13.5	15,531,995	14.8
합계	177	100	2,190	100	105,045,158	100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자활기업의 조직 유지 기간은 3년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인 조직의 비율도 30% 이상으로 나타남

〈표 II-23〉 자활기업 조직유지 기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개인사업자	3	10	13	11	15	15	67
주식회사	3	9	4	4	16	33	69
유한회사	1	1					2
일반협동조합		5	5	3	9	3	25
사회적협동조합	2	3	2			7	14
합계	9	28	24	18	40	58	177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최초 자활기업 참여 당시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현황은 감소하고, 일반인의 현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활기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수급자 등의 자격변동을 통해 일부분 자활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4〉 자활기업 참여자 기초생활보장 구분 현황

(단위 : 명)

최초 보장구분				현재 보장 구분			
계	수급자	차상위	일반인	계	수급자	차상위	일반인
2,190	478	75	1,637	2,190	362	34	1,794
					△116	△41	157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 자활기업 종사자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3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통해 근속연수 기간의 연장을 통한 자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적 과정이 필요함

〈표 II-25〉 자활기업 참여자 기초생활보장 구분 현황

(단위 : 명)

구분	인원	구분	인원
1년 이하	624	1년 초과 3년 이하	718
3년 초과 5년 이하	310	5년 초과 7년 이하	175
7년 초과 9년 이하	119	9년 초과 11년 이하	135
11년 초과 13년 이하	54	13년 초과 15년 이하	38
15년 초과 17년 이하	10	17년 초과	7

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자료집』

III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1.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의 틀
2.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Ⅲ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1.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분석 틀

1) 국내외 사례 분석

□ 개요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활동 이행을 통한 성과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시장 판매 등을 통해 창출하는 매출액 등의 경제적 가치 또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승수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성과로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SVI, SPC, SROI 등의 방법론들이 대표적임
 - 본 장에서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SROI, SVI, SPC, GIIRS 등의 검토하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지표 등을 도출하고자 함

(1)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 SROI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에 의해 개발된 이후 다양한 공공 및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Miller & Hall, 2013)

- SROI의 기본 원리는 비용-편익 분석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과를 화폐단위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 및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비교함
- 이를 토대로 사회·환경·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고 각각의 성과에 상응하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산출하며, SROI의 기본 산식은 아래와 같음

$$SROI = \text{Net Present Value of Benefits} / \text{Net Present Value of Investments}$$

Net Present Value of Benefits : 편익의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of Investments : 투자의 순현재가치

자료 : Miller & Hall(2013).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and Performance Measurement

- SROI는 이해관계자 확인부터 결과의 측정 및 검증 등 7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이러한 원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 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표 III-1〉 SROI 적용을 위한 기본 원칙

구분	기본원칙
1	이해관계자 참여
2	변화에 대한 이해
3	관련성이 있는 것만을 측정
4	중요한 것만 포함
5	과대측정에 대한 경계
6	공정 투명하게 분석
7	결과에 대한 입증

자료 : The SROI Network(2012)

- SROI 방법은 6단계의 세부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에 대한 기준이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분석 범위 및 이해관계자 식별, 성과 확인 및 검증, 사회적 영향 산출, SROI 계식 및 보고 등의 단계로 진행됨

〈표 Ⅲ-2〉 SROI 방법론 적용 단계

구분	주요 내용
분석 범위 및 이해관계자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ROI 분석 대상의 범위, 해당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주체 및 관여 방법을 명확히 함 분석 대상 조직의 범위 및 관련 정보 파악 관련 시기(timescale), 필요 자원, 이해관계자 범위를 확인
산출성과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input, output, outcome 간의 관계를 표시한 impact map을 도출 각 이해관계자별 공헌도에 대한 분석. 이해관계자 관련 투입(input) 및 산출(output) 확인 의도한 변화 및 의도치 않은 변화에 대한 확인 긍정적, 부정적 변화 여부 확인
성과입증 및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성과(outcome)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측정 성과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 확인 및 해당 지표에 대한 정보 파악 성과의 지속 기간 확인 각 성과에 대한 재무적 측정대용치(financial proxy) 확인
사회적 영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차피 발생하였을 결과(deadweight)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결과를 제외하고 사회적 영향(impact) 정도를 확인 각 성과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발생한 가치 등을 확인 Impact 측정(관련 재무측정치에서 deadweight 등을 차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존속할 경우에 대한 분석
SROI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편익들을 합산 및 차감하고 이를 투자액과 비교하여 SROI 산출 각 기간별 재무지표들을 정리 할인율, 투입가치 등을 산정
보고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견사항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긍정적 성과 산출 프로세스를 체화함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변화사항을 정리 분석보고서 및 변화 계획 등에 대해 정보이용자(audience)와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자료 : The SROI Network, 2012

(2) TIMM(Total Impact Measurement & Mngement)

- TIMM은 PwC의 주도로 개발된 방법론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impact)에 대한 총체적인(holistic) 이해를 중시함 (PwC, 2013)
 - 사회부문, 환경부문, 조세부문 및 경제부문의 4대 분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결과를 활용해서 개선·보완을 진행함 (PwC, 2013)

- 사회적영향(Social impact)은 당해 사업활동이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결집등과 같은 사회적 outcomes에 미치는 결과를 측정, 평가하고,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 대기, 토양 및 수질 오염 방출량, 천연 자원 사용 정도 등을 측정하며,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impact를 측정함(PwC, 2013)
 - 조세재정적영향(Tax impact)은 당해 사업체가 납세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기여한 바를 측정하고,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 해당 분야에서 사업활동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영향을 측정함(PwC, 2013)
- TIMM은 분석 범위 및 가치체계 식별, 기존 자료 및 신규 자료 수집, 자료분석 및 영향력 평가 등의 5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계별 세부 내용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표 III-3〉 TIMM 방법론의 적용 단계

구분	주요 내용
분석 범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의 목적 결정 • 분석 대상의 영향력 범위 결정(대상 기간, 지역, 사업 분야, 가치체인 관련 분야 등)
가치의 범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영향력이 가치 체인의 어디에 연관되는지를 분석 • 영향지도 및 발생 경로에 대한 이해, 측정방법론 및 필요 자료의 범위 확인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활동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자료 확인
새로운 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추가자료 내역 확인 및 확보 방안(외부자료 및 내부자료 등 확인)
자료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 진행

자료 : PwC(2013). Measuring and managing total impact: A new language for business decisions

(3) 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 System(GIIRS)

- GIIRS는 개별 평가사례별로 해당 조직의 성과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적 가치 평가측정방법임
- GIIRS는 점수 평가 혹은 등급제 시스템에 기반한 분석 방법론으로 조직,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평가방법론 중 하나임(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 GIIRS는 개별 평가자 역량과 무관하게 해당 조직의 성과가 일정하고 동일한 값을 산출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는 영역이 사전에 정밀한 연구와 검증을 거쳐 진행됨
 - 각 영역별 평가 항목 및 가중치에 대한 값이 이미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 평가자의 역할은

실제 평가를 적용하는 주체가 아닌 피평가자인 조직이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 성과 데이터가 공정한지에 대해 검증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함(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 다만, 평가 대상 조직의 성과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평가 영역과 항목에 포함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치 또는 변동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론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상 조직의 성과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은 갖고 있음(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 GIIRS는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의 및 모델링 단계) 평가대상이 되는 조직의 평가대상과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단계로 의도성을 기반한 성과영역과 의도성을 기반하지 않은 성과에 해당되는 네 가지 영역(거버넌스, 노동자, 커뮤니티, 환경)의 표준 지표를 설정한 후, 지역산업 및 규모에 따라 영역, 지표에 대한 내용과 가중치를 조정함(GIIRS 홈페이지 <https://giirs.org/> 2023년 9월 5일 검색)
 - 의도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성과영역에 대한 주요 내용과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Ⅲ-4〉 GIIRS의 영역 및 주요 지표

영역	주제	주요 내용	지표
거버넌스	임무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참여 • 조직의 미션과 사회적·환경적 영향력 등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사회적·환경적 사명 • 핵심성과지표의 작성 및 환류체계 구축 • 근로자 대상 사회적·환경 관련 교육 등 역량강화 추진 실적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근로자의 참여와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 거버넌스의 운영 • 근로자 관련 위원회의 독립성 •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등 참여
	부패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회계의 독립성 • 기업의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의무 • 내부 근로자에 대한 구제 조치
	투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회계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재무재표 작성 • 고객 관리 및 보호 체계 • 재무정보의 내부 근로자 간 공유
근로자	보상 및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임금과 성과 보상체계 •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임금의 지급(최저임금 준수) • 근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최고 임금자와 최저 임금자 간 비율
	근로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 직원의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급 비율 • 유급 출산 및 육아 휴가 보장 여부

영역	주제	주요 내용	지표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개발 지식 함양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교육 운영 현황 교육비 환급받은 직원의 비율 외부 전문가 교육 참여 기회 해임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영업이익에 대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주 등을 소유한 직원의 비율 정규직 근로자의 회사 이익 배당 비율
	직무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근무 시간 운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및 장기 휴가 지원 시간제 근로, 자율근로제 운영
	노동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O 기본원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금지, 단체 교섭,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 금지 등에 대한 원칙 준수
	근로자 관리자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관리자 간 의사소통 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피드백 프로세스 운영 윤리강령 및 차별금지 원칙 준수 익명에 의한 의견수렴 체계
	산업보건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안전환경 조성 근로자의 보건안전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상/사고/분실일수/부재일수 측정 근무 중 직원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 등 작성 및 비치
지역사회	공급 및 유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업체에 대한 선호도 공급업체의 평균 납품기간 제3자 사회 또는 환경 인증 업체 현황 공급업체와의 소통 체계 현황
	글로벌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업체에 대한 표준기준 준수 점검 행동강령 원칙에 따라 공급업체는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제공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공급업체의 현장 방문 비율 노동조합 등 회원 여부 공급업체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인증 등 여부
	지역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지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공급업체의 매출원가 지역사회 또는 지역은행과의 협력 현황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참여 보장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 및 이사회 참여 비율 비공인 투자자의 참여 비율 여성 또는 소수민족 등 공급업체 참여 비율
	고용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일자리 등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의 근로자 채용 비율 정규직 근로자 감소율 불안정적 고용자의 비율 지역 내 저소득층 고용 비율 저소득층 고용 공급업체의 비율

영역	주제	주요 내용	지표
	시민참여 및 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및 기부를 위한 직원의 적극적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지역사회 봉사 계획 •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직원의 유급 및 무급 휴가 비율 • 자원봉사 활동 시간 • 지역 내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업 현황 • 지역 내 기부활동 계획 • 사회봉사단체에 기부된 금액 비율 •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우수사례 등
환경	기업의 환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을 개선 • 시설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 환경오염 및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 시스템 현황 • 친환경 건축기준 준수 현황 • 사무실 내 친환경 및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 기업의 친환경 노력 등
	원자재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생산 등을 위해 소비되는 원자재 투입 현황 • 원자재 소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 영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 요소를 반영한 프로세스 • 수명주기 평가를 통한 제품 수명 • 무독성 재료의 비율 • 에머지 절감 등 모니터링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친환경 소재의 활용 비율
	생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dp 내재된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점검 •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배출물에 대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온실가스 배출 감소율 • 비유해 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관리 • 회사의 폐수 처리 및 관리
	운송, 유통, 공급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품과 제품의 운송, 유통으로 인한 오염과 배출 등 관리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저배출 차량의 비율 • 유통 및 공급망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비율 • 재생에너지, 물재활용 및 물회수 시스템 운영 현황 • 유해배출 및 폐기물 생산을 줄이기 등 개선 비율

자료 : GIIRS 홈페이지 <https://giirs.org/> 2023년 9월 5일 검색)

- (분석단계) 정의 및 모델링 단계를 거친 평가자는 평가 대상 조직에 대한 모델링 및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을 완료함으로써 질문 및 지표 등을 확정하며, 정의 및 모델링을 통해 구성된 지표표를 통해 데이터 수집과 검토, 분석, 평가 작업을 통해 피평가자는 이러한 지표에 따라 관련 자료 및 내용을 작성한 후 평가자와 함께 관련자료 및 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확정함 (GIIRS 홈페이지 <https://giirs.org/> 2023년 9월 5일 검색;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 1차 과정이 종료되면 자료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작업이 수행되며, 프레임워크와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점수가 계산되며, 산출된 점수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실질적인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방법론에 비해 정확성, 엄밀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GIIRS 홈페이지 <https://giirs.org/> 2023년 9월 5일 검색;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4) K-ESG

- K-ESG는 기업에 대한 ESG 경영의 필요성이 점증적으로 증가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 등이 목표 설정, 구체적인 실천 등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도입을 추진
 - 글로벌 ESG 기준을 그대로 국내기업등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으므로,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에 대한 검토 및 기준 등의 제시 필요성 증대되었고, 산업 전반에 걸친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의 자리메김이 필요한 상황에서 K-ESG 체계를 도입
 - K-ESG는 영역, 범주, 진단항목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영역) ESG 정의를 기반으로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4개 영역으로 구분
 - (범주) 국내외 ESG 경영공시/평가기준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통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여건에 맞게 ESG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가치로 설정
 - (진단항목) 각 범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지표 혹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
 - K-ESG 체계는 4개 영역 61개 세부항목 및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Ⅲ-5〉 K-ESG 진단항목 및 지표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및 지표
정보공시 (5개 문항)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P-1-2	ESG 정보공시 주기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P-3-1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E-1-1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E-2-1	원부자재 사용량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E-3-1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 2)
		E-3-2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E-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E-4-1	에너지 사용량
		E-4-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E-5-1	용수 사용량
		E-5-2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E-6-1	폐기물 배출량
		E-6-2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7-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법/규제 위반	E-8-1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E-9-1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 (22개 문항)	목표	S-1-1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S-2-1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S-2-2	정규직 비율
		S-2-3	자발적 이직률
		S-2-4	교육훈련비
		S-2-5	복리후생비
		S-2-6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S-3-1	여성 구성원 비율
		S-3-2	여성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S-3-3	장애인 고용률
	산업안전	S-4-1	안전보건 추진 체계
		S-4-2	산업재해율

〈표 III-5〉 K-ESG 진단항목 및 지표(계속)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및 지표
사회 (22개 문항)	인권	S-5-1	인권정책 수립
		S-5-2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	S-6-1	협력사 ESG 경영
		S-6-2	협력사 ESG 지원
		S-6-3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S-7-1	전략적 사회공헌
		S-7-2	구성원 봉사비
	정보보호	S-8-1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S-8-2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S-9-1	사회 법 / 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구성	G-1-1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G-1-2	사외이사 비율
		G-1-3	대효이사 의사회 의장 분리
		G-1-4	이사회 성별 다양성
		G-1-5	사외이사의 전문성
	이사회 활동	G-2-1	전체 이사 출석률
		G-2-2	사내이사 출석률
		G-2-3	이사회 산하 위원회
		G-2-4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 관리	G-3-1	주주총회 소집 공고
		G-3-2	주주총회 개최일
		G-3-3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G-3-4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	G-4-1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G-5-1	내부감사 부서 설치
		G-5-2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G-6-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5)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 G4 가이드라인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지표가 개선·보완되고 있음(GRI, 2023)
- 현재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15,000개에 달하고 있어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GRI, 2023), G4 가이드라인의 범주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Ⅲ-6〉 GRI G4가이드라인의 범주와 내용

구분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노동관행 양질일자리	인권	사회	제품책임
세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성과 • 시장에서 존재감 • 간접적인 경제 영향 • 조달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 에너지 • 물 • 생물 다양성 • 폐수-폐기물 • 제품 및 서비스 • 교통 • 일반사항 • 공급업체 환경평가 • 환경의 불만처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 노사관계 • 노동안전 • 위생 • 교육과 훈련 • 다양성과 기회균등 • 인권에 대한 공급업체 평가 • 인권에 대한 불만 메커니즘 • 공급업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 차별금지 • 결사자유 • 아동 노동 • 강제 노동 • 보안 관행 • 원주민의 권리 • 평가 • 인권에 대한 공급업체 평가 • 인권에 대한 불만 메커니즘 • 공급업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 부정방지 • 비경쟁 활동 •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공급업체 평가 •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공급업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안전 및 위생 제품 • 제품 및 서비스의 라벨링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자료 : GRI(2023), Consoli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

- G4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는 크게 일반현황,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측정·작성하도록 되어 있음(GRI, 2023)
 - 일반현황은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 및 현황, 비전 및 미션체계, 윤리 및 청렴 등 경영전략, 내부 협력체계,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제적 성과는 핵심 성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간접효과, 세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적 성과는 원재료, 에너지,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등 환경 오염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적 성과는 고용, 노사관계, 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G4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경영의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III-7〉 G4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지표 내용

구분	분류	중분류	지표 내용
공통 (102)	조직 현황	102-1	조직명칭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2-3	본사의 위치
		102-4	사업지역
		102-5	소유구조 및 법적 형태
		102-6	시장영역(제품과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는 위치, 고객 유형 등)
		102-7	조직의 규모(임직원 수, 사업장 수, 순 매출 등)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02-9	조직의 공급망
		102-10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 및 공급망의 변화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전략
		103-12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 이니셔티브(사회헌장, 원칙 등)
		103-13	협회 멤버십 현황
	전략	102-14	최고 의사결정권자 명시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윤리성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102-17	윤리 관리 안내 및 고충처리 매커니즘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102-19	권한 위임 절차
		102-20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직원 입장
		102-21	이해관계자와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협의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산하위원회 임명과 선정 절차
		102-25	이해관계 상충
		102-26	목적, 가치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102-2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공동지식 강화 및 개발 절차
		102-28	최고의사결정기구의성과평가에 대한 절차
		102-29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파악과 관리
		102-30	리스크관리 절차의 효과성
		102-3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점검
		102-32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102-33	중요사항을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절차
		102-34	중요사항의 특성 및 보고 횟수

〈표 Ⅲ-7〉 G4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지표 내용(계속)

구분	분류	중분류	지표 내용
공통 (102)	거버넌스	102-35	보상정책
		102-36	보수 결정 절차 및 보수자문위원 관여 여부
		102-37	보수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102-38	연간 총 보상 비율
		102-39	연간 총 보상 인상율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있는 이해관계자 리스트
		102-41	전체 임직원 중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 비율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보고서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 리스트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102-47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요 토픽 리스트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102-49	중요 토픽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102-50	보고 기간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102-52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102-55	적용한 GRI 인덱스		
102-56	보고서 외부 검증		
공통 (103)	경영전략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 방식의 목적, 토픽 관리 방법
		103-3	경영방식 평가, 결과, 조정사항
경제적 성과 (200)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영가치 발생과 분배
		201-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위험, 기회
		201-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총당
		201-4	국가별 정부의 재정지원 금액
	시장지위	202-1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임금기준 등
		202-2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 및 정의
	간접경제 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203-2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영향의 예시
	조달 관행	204-1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구매 비율
	반부패	205-1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 파악된 중요한 위험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관련 교육 현황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표 III-7〉 G4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지표 내용(계속)

구분	분류	중분류	지표 내용
경영 성과 (200)	반경쟁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세금	207-1	세금관리에 대한 접근법
		207-2	세금 관련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207-3	세금 관련 이해관계자 소통 및 고충처리 절차
		207-4	국가별 세무내역 공시 내용 등
환경적 성과 (300)	원재료	301-1	사용된 원료의 중량과 부피
		301-2	재활용 투입재 사용
		301-3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302-3	에너지 집약도
		302-4	에너지 사용량 절감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용수	303-1
	303-2		방류수 관련 영향 관리
	303-3		용수 취수량
	303-4		용수 방류량
	303-5		용수 사용량
	생물 다양성	304-1	생태계 보호지역 / 주변지역에 대한 소유, 임대 관리 사업장
		304-2	생태계 보호지역/주변지역에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영향
		304-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305-6	오존파괴물질 배출
	폐수 및 폐기물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306-3	폐기물 발생량 및 종류
		306-4	폐기물 재활용
		306-5	폐기물 매립
	컴플라이언스	307-1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 벌금 액시 및 제재 조치 수
	공급업체 환경평가	308-1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308-2	공급망 내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등

〈표 Ⅲ-7〉 G4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지표 내용(계속)

구분	분류	중분류	지표 내용
사회적 성과 (400)	고용	401-1	신규채용, 퇴직자 수 및 비율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
		401-3	육아휴직
	노사관계	402-1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산업안전 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시스템
		403-2	위험식별, 리스크 평가, 사고조사
		403-3	산업 보건 지원 프로그램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403-5	직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403-6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명
		403-7	사업관계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보건, 예방, 완화
		403-8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403-9	업무 관련 상해
		403-10	업무 관련 질병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비율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 조치
	결사, 단체교섭	407-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침해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아동노동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강제노동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보안관행	410-1	인권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
	원주민 권리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
	인권평가	412-1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412-3	인권 조항 또는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주요 투자협약과 계약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413-2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사업장
	공급망 관리	414-1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해 스크리닝된 신규 협력회사
		414-2	공급 내 주요한 부정적인 사회 영향과 이에 대한 시행 조치
공공 정책	415-1	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 기부한 정치자금 총규모	
고객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 위반 사전	

〈표 III-7〉 G4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지표 내용(계속)

구분	분류	중분류	지표 내용
사회적 성과 (400)	마케팅 및 라벨링	417-1	정보 및 라벨을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정보 유형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등 위반 사건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고객정보보호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식 관련 제기 불만 건 수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 및경제 측면의 관련 법규 및 규정 위반에 관한 벌금의 액수

자료 : GRI(2023), *Consoli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를 토대로 정리.

(6) SVI(Social Value Index)

- SVI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수준의 측정과 개별기업의 성과 창출, 성과기반의 자원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SVI는 다양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원사업 및 기업선정 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평가도구로 직접 활용하거나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객관적인 정보 축적의 기능도 포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SVI의 측정 영역은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사회적 성과는 조직의 미션, 사업활동, 조직 운영, 내부 권한 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경제적 성과는 주 활동으로 인한 생산·소비 활동, 영업활동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함. 혁신성과는 기업의 혁신노력 및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며, 사회적기업가 정신에서 요구되는 혁신성과 진취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 활동에 초점을 두어 평가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현행 SVI의 관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및 가치 등 공통요인에 기반한 핵심 키워드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구성하고 있음
 - 사회적 성과 관점은 크게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대내적 측면은 사회적 미션의 관리, 근로자 고용의 질, 기업 내부운영의 민주성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대외적 측면은 창출된 수익의 사회적 활용,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경제적 성과 관점은 대내적으로 얼마나 조직의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대외적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수준)을 포함하고 있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혁신성과 관점은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제품 자체, 운영방식 등 사업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혁신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측정결과는 각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4등급 체계로 구분하여 판정
 - 탁월(90점 이상) : 모든 사업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의 등급으로 판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보통(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부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활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사회적 성과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미흡(60점 미만) : 일부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활동이 미비하여 관련 성과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을 위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SVI의 지표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구성되며, 하위 범주 및 영역,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적 성과는 조직 미션, 사업활동, 조직 운영 3개 영역 9개 측정지표로 구성되며, 경제적 성과는 재정성과 등 4개 측정지표, 혁신 성과는 기업혁신 영역 1개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세부 측정지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 SVI 지표 체계는 관점별로 사회적 성과(60%), 경제적 성과(30%), 혁신성과(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65%), 비계량(35%)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가 활용되는 사업의 특징 및 목적에 따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3대 관점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의 모듈화가 가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표 III-8〉 사회적가치지표(SVI) 구성체계 및 지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5	
	사업 활동 (35)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형성(비계량 지표)		15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조직 운영 (18)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비계량지표)		10
			운영의 민주성 (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13. 노동생산성	5	
혁신성과 (10)	기업혁신 (10)	기업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비계량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 『2023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7)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매뉴얼 지표

- 한국자활기업협회에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음(한국자활기업협회, 2024)
 - 특히 자활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구분하여 측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자활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지역경제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기에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자활기업의 고유한 가치를 통해 안정적 소득 창출, 일자리 유지, 탈빈곤, 구성원의 성장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성과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에 구분되어야 함
- 자활기업의 자활, 자립, 협동, 연대를 주요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음
 - 자활: 자활기업의 목적으로서 자활의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저소득층 일자리와 공공성 실현 영역 평가
 - 자립: 사업경영의 원칙으로서 자립의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경영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영역 평가
 - 협동: 조직운영의 원리로서 협동의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발적 참여와 역량개발 영역 평가
 - 연대: 사회관계의 지향으로서 연대의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협력과 공헌 영역 평가
- 핵심 가치 배점 비중은 자활과 자립이 35%, 협동이 20%, 연대가 10%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55점, 사회적 성과 45점으로 구성하였음
 - 각 세부 지표별로 비계량과 계량 지표를 구분하여 구성

〈표 Ⅲ-9〉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가치	범주	영역	구분	지표	배점
자활 (35)	기업 목적	저소득층 일자리와 공공성	사회적 가치	1. 수급자·차상위자·취약계층 구성	10
				2. 기업의 공공성 실현	5
			사회적 성과	3. 탈수급자 · 탈차상위자 비율	10
				4. 일자리 성장과 취약계층 고용율	10
자립 (35)	사업 경영	경영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5. 독립적 경영 관리	10
				6. 지속가능한 경영 목표 수립	10
			사회적 성과	7. 구성원 근속연수 수준	10
				8. 구성원과 이익 공유 수준	5
협동 (20)	조직 운영	자발적 참여와 역량개발	사회적 가치	9. 주체적 참여와 의사결정	10
				10. 구성원의 역량개발	5
			사회적 성과	11. 구성원 성장 수준	5
연대 (10)	사회 관계	지역사회 협력과 공헌	사회적 가치	12. 지역사회와 협력	5
			사회적 성과	13. 사회공헌 수준	5

(8) 시사점

□ 분석 목적과 대상의 범위 결정

- 사례분석에서 검토한 평가방법론들은 분석의 목적과 유형,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 출발하고 있음
 -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성과 측정 vs 미래의 잠재적 성과 추정 및 사업 개선, 조직 전체, 특정 프로젝트, 사회적·경제적 등 특정 성과에 방점을 두고 추진 등 목적과 범위에 대한 설정 필요

□ 측정 대상 가치 또는 영향의 범위 결정

- 사례분석에서 검토한 방법론들은 사회적 영향의 식별과 측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모든 방법론들에서 impact를 같은 정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전체 Outcome 중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의미하며, 조직의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게 된 Outcome은 산출 및 측정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Impact의 경우에는 활동 설계 당시부터 의도한 것인지에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음

□ 가치창출의 경로

- 사회적가치 혹은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방법들은 “Input ⇒ Output ⇒ Outcome”으로 이어지는 가치창출체계의 구조를 전제로 설정하고 있음
 - 가치창출체계의 구성요소들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 투입(inputs): 조직 또는 프로젝트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금전, 인력, 자본재 등)
 - 산출(outputs):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서 측정가능한 변수
 - 성과(outcomes): 사업활동의 효과로서 사회에 가져오고자 하는 궁극적 변화
 - 목표조정(goal alignment): outcome이나 impact가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조직 활동을 개선을 위하여 할 일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 근거 데이터 확보 및 가치 측정

- 주관적·객관적 지표 확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근거들을 확보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중시하며, 구체적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측정치 또한 비용 대비 효용(cost-benefit) 비율,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투자 대비 수익 비율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

2) 경기도 자활사업 성과 분석 체계 및 지표

□ 기본 방향

- 자활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의 지표체계 및 지표를 활용
 -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가 자활기업의 특수성 및 여건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지표체계 및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표체계 및 측정 지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현실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를 활용하여 자활기업에 맞게 재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함
- 자활기업은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 그 영향을 살펴볼 수 있고, 기업의 측면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측정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지표의 타당성, 현장의 활용 및 적용 가능성, 데이터 및 분석의 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성과 측정방법을 선택
 - 또한, 자활사업 영역에서 관련 지표에 대한 인식 및 일부 기관에서 활용 경험 등을 반영하여 선택하는 것이 적절함

□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측정

- 본 연구는 자활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자활기업협회의 “자활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성과측정체계(SVI)”를 자활기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함

- 자활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규모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표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성체계는 자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성과의 비중도를 높이는 지표로 구성함
 - 자활기업은 일반 시장체계 내에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일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노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성과 측면의 비중도를 경제적 성과와 동등한 구조로 구성
- 한국자활기업협회의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매뉴얼”은 측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용이함
 -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중 ‘1. 수급자·차상위자·취약계층 구성’, ‘4. 일자리 성장과 취약계층 고용률’, ‘13. 사회공헌 수준’이 사회적 성과에 해당함
- 사회성과측정체계(SVI)는 사회적 기업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성격이 강하여 자활기업의 고유한 가치와 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에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별하여 사용하고자 함
 - 사회성과측정체계(SVI) 중 ‘8. 고용성과’, ‘10. 매출성과’, ‘9. 노동생산성’이 경제적 성과에 해당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 ‘월평균 임금’, ‘사회공헌 활동’을 측정하였고,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일자리 창출’, ‘매출 성과’, ‘노동생산성’을 측정하였음

□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 (지표 1)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 자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

【고용 성과】	
당해연도 전체 총 유급 종사자 수(A)	당해연도 총 취약계층 종사자 수(B)
취약계층 고용률 (B/A)×100%	

- (지표 2) 월평균 종사자 임금
 - 자활기업의 임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

【종사자의 임금 수준】	
전체 유급 종사자의 12개월 총 임금(A)	전체 유급 종사자의 월평균 노동시간(B)
(원)	(시간)
종사자 월임금평균(=A/(B*12))	
(원/시간)	

- (지표 3)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활동 수준을 확인

【사회공헌 활동】			
연계·협력기관	연계·협력 활동 내용	횟수	금액
	•		
	•		
	•		
	•		

□ 경제적 성과 측정 지표

- (지표 1) 자활기업의 일자리 창출
 - 자활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

【고용 성과】	
당해연도 전체 총 유급 종사자 수(A)	전년도 총 유급 종사자 수(B)
고용 성장률 $((A-B)/B) \times 100\%$	

○ (지표 2) 자활기업의 매출 성과

- 자활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을 확인

【매출 성과】	
당해연도 총 매출액(A)	전년도 총 매출액(B)
(천원)	(천원)
매출액 성장률 $((A-B)/B) \times 100\%$	
(%)	

○ (지표 3)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

- 자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단 및 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 측정

【노동 생산성】		
당해연도 총 매출액(A)	당해연도 총 유급 종사자(B)	당해연도 총 유급 종사자 노동시간(C)
(천원)	(명)	(시간)
노동생산성 $(A/B * C)$		

2.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개요

- 2021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부터 자활정보시스템에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연 2회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기에 이를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짐
- 본 연구는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추출한 경기도 자활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1개 기업(2022년 해당)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176개 기업(2022년 176개 기업, 2023년 176개 기업)을 분석에 활용하였음
 - 자활정보시스템에 있는 2022년 10월 사업보고, 2023년 4월 사업보고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1) 일반 현황

(1) 자활기업 일반적 특성

- 2022년 10월 기준 경기도 자활기업은 총 176개소이며, 자활기업 종사자는 총 2,682명으로 나타났고, 2023년 기준 4월 기준 경기도 자활기업은 총 176개소, 종사자 수는 총 3,881명으로 나타났음¹⁾
 - 부천시에 소재한 자활기업이 2022년 21개소(11.9%), 2023년 23개소(13.0%)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2022년 12개소, 2023년 13개소), 수원시(2022년 12개소, 2023년 12개), 시흥시(2022년 8개소, 2023년 12개소), 안산시(2022년 10개소, 2023년 10개소)에 소재한 자활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 종사자는 2023년에 약 1.45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도 광역자활기업의 종사자가 약 2.94배로 크게 증가하였음
 - 파주시 자활기업 종사자는 약 1.20배, 남양주시 자활기업 종사자는 약 1.11배, 안산시 자활기업 종사자는 약 1.10배, 수원시 자활기업 종사자는 약 1.07배, 구리시 자활기업 종사자는 약 1.05배 증가하였음

1) 2022년에 폐업한 자활기업은 총 18개소였고, 2023년에 창업한 자활기업은 총 18개소였음

- 경기도 자체 고용 종사자 수는 2022년 평균 15.2명, 2023년 평균 22.1명으로 전국 자활기업의 종사자 평균 11.5명(이상아 외, 2023)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10〉 경기도 자활기업 개소 및 종사자

지역자활센터명		2022년			2023년		
		개소	%	명	개소	%	명
광역 자활기업		5	2.8	550	5	2.8	1,619
고양		5	2.8	43	5	2.8	37
광명		10	5.7	29	8	4.5	29
광주		5	2.8	35	5	2.8	32
구리		9	5.1	269	9	5.1	284
군포		1	0.6	11	1	0.6	11
김포		2	1.1	6	3	1.7	6
남양주		7	4.0	211	8	4.5	234
부천	부천나눔	6	3.4	91	6	3.4	77
	부천소사	8	4.5	23	9	5.1	27
	부천원미	7	4.0	29	8	4.5	30
성남	성남	4	2.3	14	5	2.8	13
	성남만남	8	4.5	52	8	4.5	53
수원	수원	6	3.4	92	5	2.8	103
	수원우만	4	2.3	69	5	2.8	74
	수원희망	2	1.1	10	2	1.1	6
시흥	시흥남부	7	4.0	26	5	2.8	27
	시흥작은자리	7	4.0	294	7	4.0	291
안산	안산	5	2.8	64	5	2.8	65
	안산양지	5	2.8	64	5	2.8	76
안성맞춤		1	0.6	8	1	0.6	5
안양		8	4.5	16	8	4.5	19
양주		4	2.3	18	4	2.3	15
양평		2	1.1	9	2	1.1	8
여주		3	1.7	16	3	1.7	17
오산		5	2.8	14	5	2.8	16

지역자활센터명	2022년			2023년		
	개소	%	명	개소	%	명
용인	4	2.3	11	6	3.4	17
의정부	5	2.8	16	5	2.8	16
이천	2	1.1	0	1	0.6	5
파주	8	4.5	431	8	4.5	518
평택	5	2.8	70	6	3.4	79
포천	4	2.3	20	3	1.7	16
하남	4	2.3	45	4	2.3	39
화성	8	4.5	26	6	3.4	17
합계	176	100.0	2,682	176	100.0	3,881

(2) 자활기업 유형

- 경기도 자활기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사회형 자활기업이 54개소(30.7%), 자립형 자활기업이 122개소(69.3%)로 나타났고, 2023년 기준 사회형 자활기업이 53개소(30.1%), 자립형 자활기업이 123개소(69.9%)로 나타났음
 - 사회형 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 인정 요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²⁾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기업을 의미함
 - 자립형 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 인정 요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³⁾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기업을 의미함

-
- 2)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 3)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표 Ⅲ-11〉 자활기업 유형

유형	2022년		2023년	
	개소	%	개소	%
사회형	54	30.7	53	30.1
자립형	122	69.3	123	69.9
합계	176	100.0	176	100

(3) 자활기업 운영기간

- 경기도 자활기업의 평균 운영기간(최초 인증일 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약 8.8년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약 8.3년으로 나타났음
 - 2022년 기준 창업 이후 11년 이상 된 자활기업은 약 35.2%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인 자활기업이 약 33.0%, 5년 이하인 자활기업이 약 31.8%로 나타났음
 - 2023년 기준 5년 이하 자활기업은 약 37.5%로 가장 많았고, 11년 이상 된 자활기업이 약 34.7%, 6년 이상 10년 이하인 자활기업이 27.8%로 나타났음
 - 2022년 18개의 자활기업이 폐업함으로써 2023년에 5년 이하 자활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평균 운영기간은 전국 자활기업 평균 운영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이상아 외, 2023)에서 운영기간이 5년 이하인 전국 자활기업은 약 51.1%, 10년 이상 자활기업이 약 20.8%로 나타났음

〈표 Ⅲ-12〉 자활기업 운영기간

	2022년		2023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운영기간	8.8	5.0	8.3	5.4
구분	개소	%	개소	%
5년 이하	56	31.8	66	37.5
6년 ~ 10년	58	33.0	49	27.8
11년 이상	62	35.2	61	34.7
합계	176	100.0	176	100

(4) 자활기업 업종

- 경기도 자활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소 관련 자활기업이 2022년과 2023년 모두 44개소(25.0%)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배송 및 운전(2022년 32개소(18.2%), 2023년 30개소(17.0%)), 집수리(2022년 24개소(13.6%), 2023년 23개소(13.1%)), 유통 및 판매(2022년 22개소(12.5%), 2023년 26개소(14.8%)), 음식점(2022년 19개소(10.8%), 2023년 20개소(11.4%))로 나타났음
 - 전국 자활기업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업종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의 경우 생산 및 가공 관련 자활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자활기업의 경우 집수리가 21.6%로 가장 많았고, 세탁 및 청소가 19.4%, 생산 및 가공이 17.5%, 배송 및 운전이 15.4%, 음식점이 10.9%로 나타났음(이상아 외, 2023)
- 유통 및 판매 관련 자활기업이 2022년 22개소(12.5%)에서 2023년 26개소(14.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2023년에 유통 및 판매가 4개소, 식품생산이 1개소, 음식점이 1개소가 증가하였고, 배송 및 운전이 2개소, 세탁이 1개소, 재활용 및 수선이 1개소, 집수리가 1개소, 홍보물 및 미디어가 1개소 감소하였음

〈표 Ⅲ-13〉 자활기업 업종

지역자활센터명	2022년		2023년	
	개소	%	개소	%
공산품생산	2	1.1	2	1.1
농산물생산·가공	1	0.6	1	0.6
배송·운전	32	18.2	30	17.0
사회서비스	15	8.5	15	8.5
생활용품생산	5	2.8	5	2.8
세탁	2	1.1	1	0.6
식품생산	4	2.3	5	2.8
유통·판매	22	12.5	26	14.8
음식점	19	10.8	20	11.4
이·미용·건강	1	0.6	1	0.6
재활용·수선	3	1.7	2	1.1
집수리	24	13.6	23	13.1
청소	44	25.0	44	25.0
홍보물·미디어	2	1.1	1	0.6
전체	176	100.0	176	100.0

2) 사회적 성과

(1)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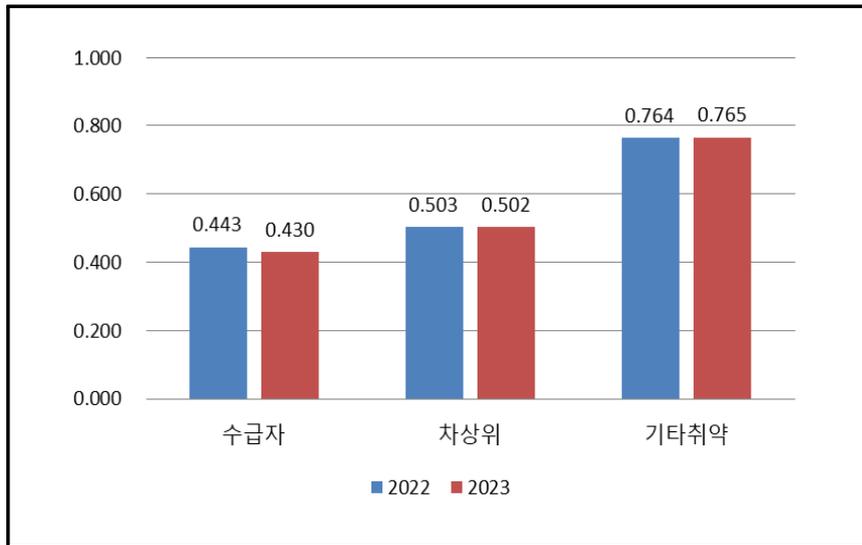
- 경기도 자활기업 자체 고용 종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등)의 비율은 2022년 약 44.3%에서 2023년 약 43.0%로 약간 감소하였음
-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를 합한 비율은 2022년 약 50.3%에서 2023년 50.2%로 나타났음
- 수급자, 차상위자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⁴⁾을 포함한 비율은 2022년 약 76.4%, 2023년 약 76.5%로 나타났음
 - 전국 자활기업의 종사자 중 취약계층은 약 51.9%로 나타났는데(이상아 외, 2023), 이는 경기도 평균 보다 약 25.4%p 낮은 것임

4)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경기도 자활기업이 전국 자활기업에 비해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은 자활기업의 고유한 목적인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그림 Ⅲ-1〉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립형 자활기업이 사회형 자활기업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음
 - 전체 종사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사회형 자활기업은 2022년 약 14.8%에서 2023년 약 15.5%로 증가하였고, 자립형 자활기업은 2022년 약 57.8%에서 2023년 약 34.4%로 감소하였음
 - 전체 종사자 대비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포함한 비율은 사회형 자활기업은 2022년 약 15.7%에서 2023년 약 16.8%로 증가하였고, 자립형 자활기업은 2022년 약 66.1%에서 2023년 약 65.9%로 감소하였음
 - 전체 종사자 대비 수급자, 차상위자 및 기타 취약계층을 포함한 비율은 사회형 자활기업은 2022년 약 68.3%에서 2023년 약 73.6%로 증가하였고, 자립형 자활기업은 2022년 약 80.1%에서 2023년 약 77.9%로 감소하였음

〈표 Ⅲ-14〉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비율 차이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수급자	사회형	54	0.148	0.172	-10.740***	53	0.155	0.143	-8.189***
	자립형	118	0.578	0.354		113	0.558	0.344	
	합계	172	0.440	0.37		166	0.43	0.350	
수급자 + 차상위	사회형	54	0.157	0.175	-12.598***	53	0.168	0.157	-10.436***
	자립형	118	0.661	0.349		113	0.659	0.325	
	합계	172	0.500	0.38		166	0.50	0.360	
수급자 + 차상위 + 기타취약	사회형	54	0.683	0.165	-3.501**	53	0.736	0.164	-1.046
	자립형	118	0.801	0.273		113	0.779	0.277	
	합계	172	0.760	0.250		166	0.76	0.250	

*p<0.5, **p<0.01, ***p<0.001

-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취약계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종사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포함한 비율도 마찬가지로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운영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활기업에 상대적으로 차상위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 수급자, 차상위자 및 기타 취약계층을 포함한 비율도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통해 운영기간이 길수록 기타 취약계층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표 Ⅲ-15〉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취약계층 비율 차이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수급자	5년 이하	52	0.713	0.293	38.035***	58	0.671	0.307	42.275***
	6년~10년	58	0.450	0.375		47	0.444	0.327	
	11년 이상	62	0.210	0.241		61	0.189	0.225	
	합계	172	0.443	0.367		166	0.430	0.350	
수급자 + 차상위	5년 이하	52	0.777	0.280	39.098***	58	0.757	0.269	47.829***
	6년~10년	58	0.531	0.394		47	0.530	0.338	
	11년 이상	62	0.247	0.270		61	0.238	0.269	
	합계	172	0.503	0.385		166	0.502	0.364	
수급자 + 차상위 + 기타취약	5년 이하	52	0.844	0.220	6.401**	58	0.843	0.212	5.528**
	6년~10년	58	0.778	0.247		47	0.757	0.221	
	11년 이상	62	0.683	0.256		61	0.697	0.276	
	합계	172	0.764	0.250		166	0.765	0.246	

*p<0.5, **p<0.01, ***p<0.001

-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유통 및 판매, 음식점, 배송 및 운전, 생산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 비율은 유통 및 판매, 음식점, 생산 분야에서 높았으며, 사회서비스, 청소 분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 및 차상위자 비율은 유통 및 판매, 음식점, 배송 및 운전, 생산 분야에서 높았으며, 사회서비스, 집수리, 청소 분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취약계층을 포함한 비율은 음식점, 유통 및 판매, 생산 분야에서 높았으며, 사회서비스, 집수리 분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으나 기타 취약계층을 포함할 경우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 이를 통해 기타 취약계층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표 Ⅲ-16〉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취약계층 비율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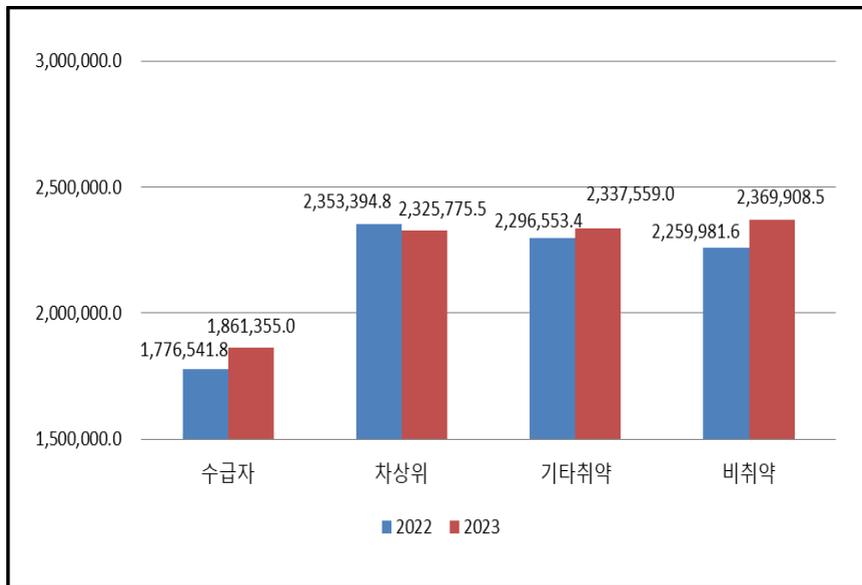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수급자	배송·운전	31	0.512	0.353	5.950***	28	0.468	0.301	8.171***
	사회서비스	15	0.115	0.254		15	0.093	0.252	
	생산	12	0.513	0.401		12	0.444	0.400	
	유통·판매	21	0.702	0.298		25	0.644	0.322	
	음식점	17	0.652	0.277		18	0.722	0.238	
	집수리	24	0.323	0.343		23	0.359	0.306	
	청소	44	0.356	0.337		42	0.295	0.303	
	기타	8	0.400	0.450		3	0.577	0.477	
	합계	172	0.443	0.367		166	0.430	0.350	
수급자 + 차상위	배송·운전	31	0.659	0.336	7.953***	28	0.628	0.255	11.903***
	사회서비스	15	0.125	0.253		15	0.098	0.251	
	생산	12	0.651	0.420		12	0.594	0.437	
	유통·판매	21	0.746	0.310		25	0.720	0.301	
	음식점	17	0.711	0.292		18	0.807	0.237	
	집수리	24	0.361	0.337		23	0.425	0.297	
	청소	44	0.370	0.344		42	0.312	0.314	
	기타	8	0.468	0.494		3	0.587	0.461	
	합계	172	0.503	0.385		166	0.502	0.364	
수급자 + 차상위 + 기타취약	배송·운전	31	0.763	0.261	2.283*	28	0.764	0.193	1.003
	사회서비스	15	0.715	0.175		15	0.711	0.219	
	생산	12	0.858	0.192		12	0.784	0.227	
	유통·판매	21	0.830	0.258		25	0.815	0.239	
	음식점	17	0.848	0.221		18	0.861	0.230	
	집수리	24	0.635	0.266		23	0.686	0.256	
	청소	44	0.736	0.261		42	0.753	0.293	
	기타	8	0.905	0.178		3	0.743	0.229	
	합계	172	0.764	0.250		166	0.765	0.246	

*p<0.5, **p<0.01, ***p<0.001

(2) 취업계층 종사자 월평균 임금

- 경기도 자활기업에 고용된 수급자의 월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상위자, 기타 취업계층, 비취업계층의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에 고용된 수급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약 1,776,541.8원에서 2023년 약 1,861,355.0원으로 증가하였음
 - 수급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022년 152.9시간, 2023년 154.8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차상위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약 2,353,394.8원에서 2023년 약 2,325,775.5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음
 - 차상위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022년 161.6시간, 2023년 173.8시간임
- 기타 취업계층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약 2,296,553.4원에서 2023년 약 2,337,559.0원으로 약간 증가하였음
 - 기타 취업계층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022년 162.9시간, 2023년 159.3시간임
- 비취업계층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약 2,259,981.6원에서 2023년 약 2,369,908.5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음
 - 월평균 노동시간은 2022년 163.9시간, 2023년 165.9시간임

〈그림 Ⅲ-2〉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 자활기업의 유형에 따른 월평균 종사자 임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급자와 비취약 계층은 사회형 자활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더 높았으며, 차상위자와 기타 취약계층은 자립형 자활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는 사회형 자활기업 임금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자립형 자활기업 임금이 2022년 1,763,476.4원에서 2023년 1,851,527.0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차상위자는 2022년에는 사회형 자활기업의 임금이 더 높았으나 2023년에는 자립형 자활기업의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취약계층은 자립형 자활기업의 임금이 더 높았으나 2023년에 두 유형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 비취약 계층은 사회형 자활기업의 임금이 더 높았으며 상대적 수준의 차이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

〈표 Ⅲ-17〉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

(단위 : 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수급자	사회형	43	1,807,230.3	696,360.2	0.375	45	1,883,413.3	658,485.3	0.287
	자립형	101	1,763,476.4	615,266.6		101	1,851,527.0	603,210.3	
	합계	144	1,776,541.8	638,396.0		146	1,861,355.0	618,655.1	
차상위	사회형	10	2,573,293.0	1,740,534.1	0.510	12	2,117,214.2	535,564.3	-0.655
	자립형	23	2,257,787.0	1,585,660.1		28	2,415,158.9	1,525,316.8	
	합계	33	2,353,394.8	1,613,167.7		40	2,325,775.5	1,307,951.7	
기타취약	사회형	51	2,220,471.0	1,323,350.6	-0.680	47	2,186,312.4	857,698.9	-1.586
	자립형	34	2,410,676.9	1,168,732.0		33	2,552,970.9	1,211,960.7	
	합계	85	2,296,553.4	1,260,086.5		80	2,337,559.0	1,027,774.8	
비취약	사회형	51	2,416,933.3	1,559,959.4	1.166	46	2,624,119.1	1,019,984.6	2.262*
	자립형	49	2,096,623.8	1,146,334.8		59	2,171,710.5	1,014,745.5	
	합계	100	2,259,981.6	1,375,520.5		105	2,369,908.5	1,036,961.1	

*p<0.5, **p<0.01, ***p<0.001

-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월평균 종사자 임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수급자를 제외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활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에는 비취약 계층을 제외하고 운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수급자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운영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활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5년 이하의 자활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차상위자는 2022년에는 운영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활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23년에는 운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감소하였음
- 기타 취약계층은 2022년에는 운영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활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23년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활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비취약 계층은 2022년에는 운영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활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23년에는 운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18〉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

(단위: 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수급자	5년 이하	52	1,889,655.2	502,152.9	2.294	60	2,010,840.6	552,986.4	3.751*
	6년~10년	46	1,619,636.8	704,473.6		41	1,677,997.0	604,437.1	
	11년 이상	46	1,805,579.4	687,187.8		45	1,829,100.2	675,460.0	
	합계	144	1,776,541.8	638,396.0		146	1,861,355.0	618,655.1	
차상위	5년 이하	12	2,467,534.2	2,065,024.1	1.001	17	2,665,693.5	1,762,828.1	1.228
	6년~10년	11	2,751,657.3	1,586,048.0		11	2,261,654.5	888,756.8	
	11년 이상	10	1,778,339.0	816,693.6		12	1,903,002.5	670,450.7	
	합계	33	2,353,394.8	1,613,167.7		40	2,325,775.5	1,307,951.7	
기타취약	5년 이하	10	2,104,878.5	522,721.3	0.769	16	2,390,268.9	468,270.1	0.122
	6년~10년	27	2,541,978.6	1,689,087.8		21	2,242,881.4	903,157.9	
	11년 이상	48	2,198,434.0	1,074,692.5		43	2,364,184.0	1,230,400.2	
	합계	85	2,296,553.4	1,260,086.5		80	2,337,559.0	1,027,774.8	
비취약	5년 이하	20	1,996,585.1	1,235,149.3	0.483	26	2,269,706.6	1,141,347.0	0.279
	6년~10년	31	2,372,997.9	2,017,798.1		32	2,333,218.0	1,275,935.5	
	11년 이상	49	2,295,990.3	845,761.6		47	2,450,320.1	782,787.4	
	합계	100	2,259,981.6	1,375,520.5		105	2,369,908.5	1,036,961.1	

*p<0.5, **p<0.01, ***p<0.001

-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월평균 종사자 임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배송 및 운전 분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취약계층 및 미취약 계층은 집수리 분야와 배송 및 운전 분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는 배송 및 운전 분야의 임금이 2022년 1,976,989.2원, 2023년 2,071,105.3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차상위자는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배송 및 운전 분야의 임금이 2022년 2,554,756.4원, 2023년 2,809,46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기타 취약계층은 집수리 분야의 임금이 3,486,490.5원, 2023년 3,273,112.2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미취약 계층은 기타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집수리 분야의 임금이 3,052,982.5원, 2023년 2,871,044.5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III-19〉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

(단위: 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수급자	배송·운전	29	1,976,989.2	664,246.3	2.503*	27	2,071,105.3	716,186.3	1.231
	사회서비스	13	1,708,521.3	609,033.4		13	1,711,598.1	638,214.8	
	생산	9	1,416,168.0	558,098.9		10	1,840,947.3	387,823.1	
	유통·판매	20	1,982,062.1	332,963.3		24	1,932,598.4	459,183.2	
	음식점	17	1,537,087.5	488,179.6		19	1,885,342.7	668,460.1	
	집수리	16	1,869,164.2	769,995.4		19	1,736,436.7	560,738.7	
	청소	34	1,791,314.9	661,663.1		30	1,827,682.9	628,567.5	
	기타	6	1,158,330.3	783,673.3		4	1,287,768.8	939,145.6	
	합계	144	1,776,541.8	638,396.0		146	1,861,355.0	618,655.1	
차상위	배송·운전	10	3,287,349.0	2,554,756.4	0.873	11	2,809,460.0	2,271,309.4	0.534
	사회서비스	6	1,860,488.3	726,374.5		4	2,268,892.5	237,385.9	
	생산	3	2,187,430.0	104,946.2		4	2,242,500.0	405,657.9	
	유통·판매	4	2,420,520.0	331,872.3		6	2,144,540.0	537,060.3	
	음식점	3	1,378,866.7	278,711.1		4	2,409,497.5	1,154,425.6	
	집수리	3	1,633,333.3	321,455.0		5	1,598,092.0	271,398.8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청소	2	1,497,320.0	2,039,805.1		5	2,043,140.0	662,568.3	
	기타	2	2,675,000.0	813,172.8		1	3,370,000.0		
	합계	33	2,353,394.8	1,613,167.7		40	2,325,775.5	1,307,951.7	
기타취약	배송·운전	11	3,006,641.7	1,494,341.5	4.869***	12	2,768,334.3	659,186.1	4.824***
	사회서비스	12	1,550,580.9	506,934.3		12	1,490,746.5	471,678.9	
	생산	6	2,210,896.2	783,297.7		5	2,659,520.4	1,140,253.3	
	유통·판매	6	2,076,400.0	486,745.8		8	2,352,561.6	456,654.9	
	음식점	4	1,540,620.0	387,695.7		3	2,488,240.0	599,859.1	
	집수리	15	3,486,490.5	1,957,647.5		13	3,273,112.2	1,613,786.8	
	청소	28	1,881,641.8	560,832.0		26	1,961,843.6	661,752.3	
	기타	3	2,219,141.3	473,315.7		1	2,754,545.0		
	합계	85	2,296,553.4	1,260,086.5		80	2,337,559.0	1,027,774.8	
비취약	배송·운전	16	2,605,267.3	1,130,313.7	2.021	19	2,729,858.6	1,191,062.4	3.036**
	사회서비스	13	1,760,471.2	515,983.3		13	1,772,586.9	307,470.2	
	생산	6	2,273,400.2	274,028.1		8	2,325,091.9	654,008.3	
	유통·판매	7	1,794,288.9	890,463.3		11	1,732,277.2	825,636.9	
	음식점	6	1,275,601.3	1,055,928.4		6	1,607,239.3	999,586.0	
	집수리	18	3,052,982.5	2,583,764.4		18	2,871,044.5	1,489,461.7	
	청소	33	2,111,980.6	702,430.2		28	2,501,512.8	672,574.5	
	기타	1	2,924,682.0	-		2	2,454,537.0	572,101.7	
	합계	100	2,259,981.6	1,375,520.5		105	2,369,908.5	1,036,9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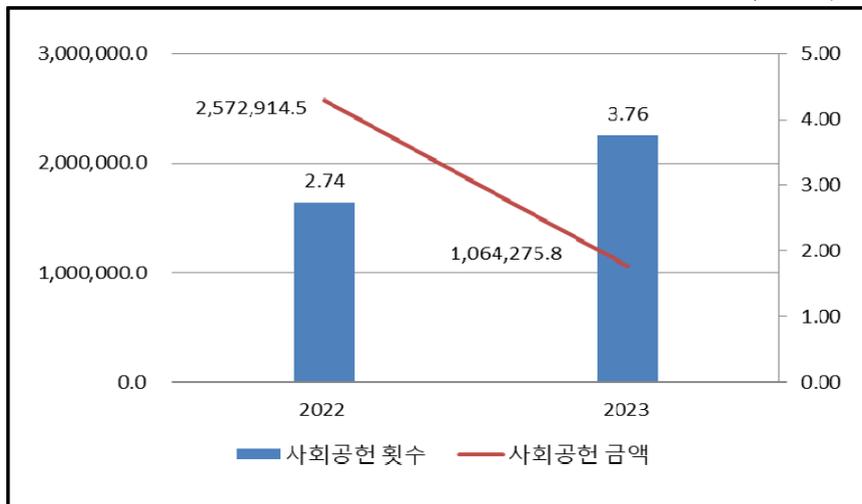
*p<0.5, **p<0.01, ***p<0.001

(3) 사회공헌 활동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살펴보면 자활기업별 평균 사회공헌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평균 사회공헌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⁵⁾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횟수는 2022년 평균 연 2.74회에서 2023년 평균 연 3.76회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금액은 2022년 평균 2,572,914.5원에서 2023년 1,064,275.8원으로 감소하였음
 - 이는 코로나 기간의 무료 방역이 2023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금액적 측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Ⅲ-3〉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단위: 건, 원)



5) 자활기업이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회공헌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자활기업이 실제 활동한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금액적으로 환산이 어려운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공헌 금액에서 제외되었기에 자활기업의 실질 사회공헌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축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유의가 필요함(영세한 자활기업의 경우 적시에 입력이 어렵고 한꺼번에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자활기업이 스스로 높게 평가해서 안된다는 부정적 해석으로 인해 실제 입력을 꺼리는 경우도 많음)

-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사회형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횟수 및 금액이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형 자활기업은 사회공헌 횟수가 2022년 7.4회에서 2023년 11.3로 증가하였으나 자립형 자활기업은 변화가 거의 없었음
 - 사회공헌 금액의 경우 사회형 자활기업과 자립형 자활기업 모두 감소하였음

〈표 Ⅲ-20〉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차이

(단위 : 건, 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사회공헌 횟수	사회형	54	7.4	15.6	3.103**	53	11.3	24.7	3.156**
	자립형	122	0.7	2.8		123	0.5	2.4	
	합계	176	2.7	9.4		176	3.8	14.5	
사회공헌 금액	사회형	54	7,275,183.1	32,110,922.4	1.551	53	3,305,142.2	9,601,208.5	2.607*
	자립형	122	491,582.5	2,308,926.3		123	98,699.2	457,204.5	
	합계	176	2,572,914.5	18,050,164.7		176	1,064,275.8	5,451,000.0	

*p<0.5, **p<0.01, ***p<0.001

-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운영기간이 길어 질수록 사회공헌 횟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운영기간이 5년 이하인 자활기업은 2022년 1.04회에서 2023년 0.77회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6년 이상 10년 이하인 자활기업은 2022년 1.19회에서 2023년 3.57회로 증가하였으며, 11년 이상인 자활기업도 2022년 5.74회에서 2023년 7.13회로 증가하였음
 - 사회공헌 금액은 11년 이상인 자활기업의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6년 이상 10년 이하인 자활기업의 감소 폭이 가장 작았음

〈표 Ⅲ-21〉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차이

(단위 : 건, 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사회공헌 횟수	5년 이하	56	1.04	4.624	5.078**	66	0.77	3.257	3.125*
	6년~10년	58	1.19	4.901		49	3.57	13.359	
	11년 이상	62	5.74	14.094		61	7.13	20.930	
	합계	176	2.74	9.418		176	3.76	14.506	
사회공헌 금액	5년 이하	56	601,340.5	2,684,719.9	2.093	66	33,181.8	150,150.3	4.807**
	6년~10년	58	467,086.2	1,528,452.3		49	331,102.0	999,853.3	
	11년 이상	62	6,323,659.5	30,065,445.2		61	2,768,828.5	9,015,403.9	
	합계	176	2,572,914.5	18,050,164.7		176	1,064,275.8	5,451,000.0	

*p<0.5, **p<0.01, ***p<0.001

-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⁶⁾ 및 청소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공헌 횟수는 청소 분야가 2022년 5.2회에서 2023년 9.7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 분야가 2022년 5.3회에서 2023년 7.5로 크게 증가하였음
 - 사회공헌 금액은 사회서비스 분야가 2022년 15,637,491.9원으로 많았으나 2023년 3,347,887.3원으로 감소하였음
 - 2022년에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 1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무료로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균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6) 가사, 노인돌봄, 병원간병, 보육, 산모도우미, 장기요양, 기타 등

〈표 Ⅲ-22〉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차이

(단위: 건, 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사회공헌 횟수	배송·운전	32	1.3	6.0	1.122	30	2.1	7.1	1.889
	사회서비스	15	5.3	12.8		15	7.5	24.3	
	생산	12	0.1	0.3		13	0.2	0.6	
	유통·판매	22	0.5	1.8		26	0.3	1.2	
	음식점	19	1.4	5.5		20	1.5	5.4	
	집수리	24	3.4	9.6		23	0.6	1.2	
	청소	44	5.2	14.2		44	9.7	23.5	
	기타	8	1.3	3.5		5	1.6	3.6	
	합계	176	2.7	9.4		176	3.8	14.5	
사회공헌 금액	배송·운전	32	943,583.4	3,523,449.9	1.286	30	314,266.7	958,385.8	1.258
	사회서비스	15	15,637,491.9	59,786,726.9		15	3,347,887.3	9,228,229.6	
	생산	12	1,609,666.7	5,576,048.9		13	-	-	
	유통·판매	22	907,200.0	3,022,414.9		26	92,307.7	367,611.8	
	음식점	19	333,842.1	1,126,689.6		20	49,500.0	201,193.2	
	집수리	24	1,268,958.3	2,922,575.5		23	262,869.6	694,341.0	
	청소	44	1,797,494.3	6,801,729.5		44	2,434,490.5	9,160,516.9	
	기타	8	4,114,220.0	11,636,771.4		5	2,222,530.0	4,969,728.2	
	합계	176	2,572,914.5	18,050,164.7		176	1,064,275.8	5,451,000.0	

*p<0.5, **p<0.01, ***p<0.001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횟수는 운영기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공헌 금액은 매출액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경기도 자활기업은 운영기간이 길수록 사회공헌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이 클수록 사회공헌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 경기도 자활기업은 운영기간이 길수록 사회공헌 횟수와 사회공헌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이 클수록 사회공헌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23〉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상관관계 분석(2022)

	2022 매출액	운영기간	2022 사회공헌 횟수	2022 사회공헌 금액
2022 매출액	1			
운영기간	.233**	1		
2022 사회공헌 횟수	.119	.241**	1	
2022 사회공헌 금액	.729**	.083	.086	1

*p<0.5, **p<0.01, ***p<0.001

〈표 III-24〉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상관관계 분석(2023)

	2023 매출액	운영기간	2023 사회공헌 횟수	2023 사회공헌 금액
2023 매출액	1			
운영기간	.222**	1		
2023 사회공헌 횟수	.138	.167*	1	
2023 사회공헌 금액	.241**	.165*	.44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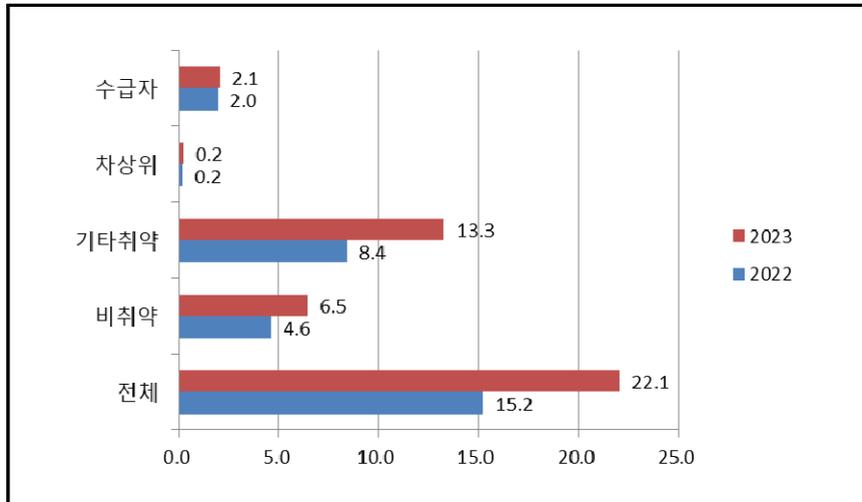
*p<0.5, **p<0.01, ***p<0.001

2) 경제적 성과

(1) 일자리 창출

-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는 2022년 평균 15.2명에서 2023년 평균 22.1명으로 약 1.45배 증가하였음
- 수급자는 2022년 평균 2.0명에서 2023년 평균 2.1명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차상위자는 2022년 평균 0.2명에서 2023년 평균 0.2명으로 변화가 없었고, 기타 취약계층은 2022년 평균 8.4명에서 2023년 평균 13.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취약 계층은 2022년 평균 4.6명에서 2023년 평균 6.5명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Ⅲ-4〉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수



-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는 사회적 자활기업에서 증가하였고, 기타 취약계층과 비취약 계층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자활기업은 2022년 평균 42.5명, 2023년 평균 65.8명을 고용하였으며, 자립형 자활기업은 2022년 평균 3.2명, 2023년 평균 3.2명으로 고용하였음
 - 수급자는 사회적 자활기업에 2022년 평균 2.2명, 2023년 평균 2.7명 고용되었으며, 자립형 자활기업에 2022년 평균 1.9명 2023년에 평균 1.8명 고용되었음
 - 차상위자는 사회적 자활기업에 2022년 평균 0.2명, 2023년 평균 0.2명 고용되었으며, 자립형 자활기업에 2022년 평균 0.2명 2023년에 평균 0.2명 고용되었음
 - 기타 취약계층은 사회적 자활기업에 2022년 평균 26.6명, 2023년 평균 43.1명 고용되었으며, 자립형 자활기업에 2022년 평균 0.4명 2023년에 평균 0.4명 고용되었음
 - 비취약 계층은 사회적 자활기업에 2022년 평균 13.4명, 2023년 평균 19.7명 고용되었으며, 자립형 자활기업에 2022년 평균 0.7명 2023년에 평균 0.7명 고용되었음

〈표 III-25〉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차이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사회형	54	42.5	82.8	3.489**	53	65.8	200.7	2.270*
	자립형	122	3.2	2.0		123	3.2	2.1	
	합계	176	15.2	49.1		176	22.1	113.1	
수급자	사회형	54	2.2	2.6	1.143	53	2.7	3.7	1.717
	자립형	122	1.9	1.6		123	1.8	1.6	
	합계	176	2.0	1.9		176	2.1	2.5	
차상위	사회형	54	0.2	0.5	0.229	53	0.2	0.5	-0.123
	자립형	122	0.2	0.4		123	0.2	0.5	
	합계	176	0.2	0.5		176	0.2	0.5	
기타취약	사회형	54	26.6	53.1	3.624**	53	43.1	133.5	2.330*
	자립형	122	0.4	0.7		123	0.4	0.8	
	합계	176	8.4	31.6		176	13.3	75.4	
비취약	사회형	54	13.4	29.3	3.191**	53	19.7	64.9	2.129*
	자립형	122	0.7	1.2		123	0.7	1.1	
	합계	176	4.6	17.2		176	6.5	36.4	

*p<0.5, **p<0.01, ***p<0.001

- 경기도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자체 고용 종사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기간이 11년 이상인 자활기업에서 기타 취약계층과 비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 전체 고용 종사자 수는 운영기간이 5년 이하 자활기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운영기간이 6년 이상 자활기업의 경우 크게 증가하였음
 - 수급자의 경우 운영기간이 5년 이하인 자활기업의 고용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운영기간이 6년 이상인 자활기업의 고용은 증가하였음
 - 차상위자의 경우 큰 변동이 없었음
 -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운영기간이 6년 이상인 자활기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비취약계층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음

〈표 Ⅲ-26〉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차이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5년 이하	56	6.3	15.2	6.614**	66	5.7	15.6	3.475*
	6년~10년	58	5.0	7.2		49	6.2	8.8	
	11년 이상	62	32.9	78.5		61	52.5	188.6	
	합계	176	15.2	49.1		176	22.1	113.1	
수급자	5년 이하	56	2.9	2.2	10.728***	66	2.4	2.2	1.288
	6년~10년	58	1.6	1.5		49	2.1	2.3	
	11년 이상	62	1.5	1.8		61	1.7	2.8	
	합계	176	2.0	1.9		176	2.1	2.5	
차상위	5년 이하	56	0.2	0.5	0.068	66	0.2	0.4	0.023
	6년~10년	58	0.2	0.5		49	0.2	0.4	
	11년 이상	62	0.2	0.5		61	0.2	0.5	
	합계	176	0.2	0.5		176	0.2	0.5	
기타취약	5년 이하	56	1.9	10.5	7.735**	66	1.9	12.0	3.809*
	6년~10년	58	1.7	4.0		49	2.2	4.3	
	11년 이상	62	20.7	50.2		61	34.5	125.3	
	합계	176	8.4	31.6		176	13.3	75.4	
비취약	5년 이하	56	1.3	3.9	5.915**	66	1.0	2.8	3.339*
	6년~10년	58	1.5	2.6		49	1.8	3.3	
	11년 이상	62	10.5	27.8		61	16.1	60.9	
	합계	176	4.6	17.2		176	6.5	36.4	

*p<0.5, **p<0.01, ***p<0.001

-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타 취약계층 및 비취약계층의 고용이 많았음
 - 사회서비스, 생산, 음식점, 집수리, 청소, 기타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고, 배송 및 운전, 유통 및 판매에서 고용이 약간 감소하였음
 - 수급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생산, 음식점, 집수리, 청소, 기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하였고, 배송 및 운전, 유통 및 판매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음

- 차상위자의 경우 음식점, 집수리, 청소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경향과 다르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음
-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서비스, 유통 및 판매, 집수리, 청소, 기타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고, 생산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음
- 비취약 계층의 경우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배송 및 운전, 청소 분야는 고용이 약간 감소하였음

〈표 III-27〉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차이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배송·운전	32	5.4	8.1	15.021***	30	5.0	6.9	6.315***
	사회서비스	15	114.4	131.7		15	190.5	353.7	
	생산	12	4.7	4.8		13	5.2	4.9	
	유통·판매	22	4.6	2.9		26	4.2	3.1	
	음식점	19	2.3	1.4		20	2.9	1.8	
	집수리	24	5.3	4.4		23	6.5	9.7	
	청소	44	9.6	17.1		44	10.2	19.7	
	기타	8	5.1	10.1		5	7.8	14.7	
	합계	176	15.2	49.1		176	22.1	113.1	
수급자	배송·운전	32	2.2	1.9	2.940**	30	1.9	1.9	0.999
	사회서비스	15	3.0	3.2		15	3.3	5.1	
	생산	12	1.6	1.2		13	1.8	1.7	
	유통·판매	22	3.1	1.9		26	2.6	2.0	
	음식점	19	1.6	1.2		20	2.1	1.6	
	집수리	24	1.3	1.3		23	2.0	3.1	
	청소	44	1.7	2.0		44	1.7	2.0	
	기타	8	0.9	0.8		5	1.2	1.1	
	합계	176	2.0	1.9		176	2.1	2.5	
차상위	배송·운전	32	0.4	0.6	2.931**	30	0.4	0.6	1.380
	사회서비스	15	0.5	0.7		15	0.3	0.6	
	생산	12	0.3	0.5		13	0.3	0.5	
	유통·판매	22	0.2	0.5		26	0.2	0.4	
	음식점	19	0.1	0.3		20	0.2	0.4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집수리	24	0.1	0.3		23	0.3	0.5	
	청소	44	0.0	0.2		44	0.1	0.3	
	기타	8	0.3	0.5		5	0.2	0.4	
	합계	176	0.2	0.5		176	0.2	0.5	
기타취약	배송·운전	32	1.2	3.1	16.642***	30	1.2	2.5	6.617***
	사회서비스	15	74.3	82.7		15	127.5	234.1	
	생산	12	1.8	3.4		13	1.6	3.2	
	유통·판매	22	0.4	0.7		26	0.5	0.8	
	음식점	19	0.2	0.4		20	0.2	0.4	
	집수리	24	1.6	2.1		23	2.0	3.3	
	청소	44	5.5	12.7		44	6.7	16.0	
	기타	8	2.3	5.2		5	3.2	7.2	
	합계	176	8.4	31.6		176	13.3	75.4	
비취약	배송·운전	32	1.7	4.0	11.583***	30	1.5	3.0	5.926***
	사회서비스	15	36.6	48.9		15	59.4	115.0	
	생산	12	1.1	1.9		13	1.5	2.2	
	유통·판매	22	0.9	1.7		26	1.0	1.5	
	음식점	19	0.4	0.7		20	0.5	0.8	
	집수리	24	2.2	2.5		23	2.2	3.8	
	청소	44	2.3	3.4		44	1.8	2.8	
	기타	8	1.8	4.6		5	3.2	6.6	
	합계	176	4.6	17.2		176	6.5	36.4	

*p<0.5, **p<0.01, ***p<0.001

- 경기도 자활기업의 전체 고용 종사자 수는 2022년도에는 매출액 및 운영기간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3년에도 매출액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의 경우 2022년에는 운영기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매출액 및 운영기간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차상위자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취약계층 및 비취약 계층의 경우 2022년에는 매출액 및 운영기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매출액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28〉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상관관계 분석(2022)

	2022 매출액	운영기간	전체 고용	수급자	차상위	기타취약	비취약
2022 매출액	1						
운영기간	.233**	1					
전체 고용	.757**	.187*	1				
수급자	.110	-.282**	.367**	1			
차상위	.013	-.033	.138	.160*	1		
기타취약	.716**	.211**	.995**	.352**	.139	1	
비취약	.828**	.179*	.978**	.283**	.092	.955**	1

*p<0.5, **p<0.01, ***p<0.001

〈표 III-29〉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상관관계 분석(2023)

	2023 매출액	운영기간	전체 고용	수급자	차상위	기타취약	비취약
2023 매출액	1						
운영기간	.222**	1					
전체 고용	.362**	.119	1				
수급자	.145	-.118	.605**	1			
차상위	-.019	-.050	.256**	.204**	1		
기타취약	.344**	.127	.999**	.591**	.254**	1	
비취약	.404**	.114	.995**	.584**	.242**	.98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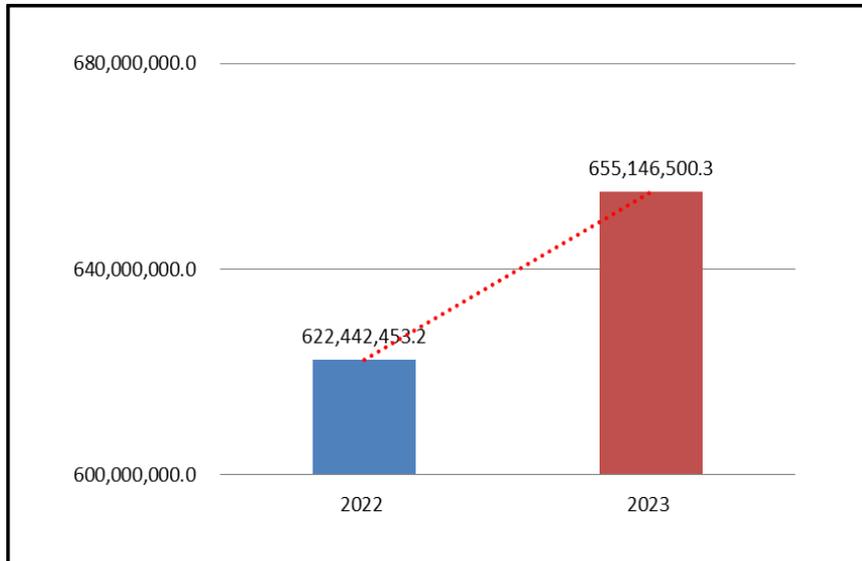
*p<0.5, **p<0.01, ***p<0.001

(2) 매출성과

-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2022년 109,549,871천원(평균 622,442천원)에서 2023년 115,305,784천원(평균 655,147천원)으로 약 1.05배 상승하였음
- 서울시 자활기업의 2022년 총매출액은 34,895,735천원(평균 288,395천원)으로(2022년 서울시 자활사업 현황보고서) 2022년 기준 경기도가 약 3.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Ⅲ-5〉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매출액

(단위 : 원)



- 사회형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자립형 자활기업의 매출액보다 약 4.5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형 자활기업의 총매출액 평균은 2022년 1,351,375천원에서 2023년 1,473,277천원으로 증가하였고, 자립형 자활기업의 총매출액 평균은 2022년 299,799천원에서 2023년 442,052천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Ⅲ-30〉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총매출액	사회형	54	1,351,375	2,161,587	53	1,473,277	2,540,244	3.333**
	자립형	122	299,799	421,084	123	302,618	442,052	
	합계	176	622,442	1,331,996	176	655,146	1,530,917	

*p<0.5, **p<0.01, ***p<0.001

- 경기도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총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1년 이상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11년 미만의 자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운영기간이 5년 이하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2022년 평균 385,381천원에서 2023년 평균 370,689천원으로 증가하였음
 - 운영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5년 이하 자활기업의 총매출액 평균보다 낮았는데, 2023년에 그 격차가 많이 감소하였음
 - 운영기간이 11년 이상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2022년 평균 1,119,386천원에서 2023년 평균 1,192,380천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III-31〉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총매출액	5년 이하	56	385,381	618,820	7.168**	66	370,689	625,384	6.082**
	6년~10년	58	320,112	411,618		49	369,491	446,815	
	11년 이상	62	1,119,386	2,048,625		61	1,192,380	2,409,008	
	합계	176	622,442	1,331,996		176	655,146	1,530,917	

*p<0.5, **p<0.01, ***p<0.001

-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사회서비스 분야가 가장 높았고, 음식점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자활기업도 경기도와 유사하게 돌봄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2022년 기준 11,036,68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나(2022년 서울시 자활사업 현황보고서) 1개 기업의 총매출액으로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함
 - 배송 및 운전, 사회서비스, 생산, 청소, 기타 분야는 총매출액이 상승하였으나 유통 및 판매업, 음식점, 집수리 분야는 총매출액이 감소하였음

〈표 Ⅲ-32〉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총매출액	배송·운전	32	367,021	675,189	6.043***	30	407,815	740,127	5.834***
	사회서비스	15	2,461,689	3,706,670		15	2,773,347	4,400,920	
	생산	12	325,693	526,529		13	382,315	579,023	
	유통·판매	22	784,746	688,308		26	751,042	760,496	
	음식점	19	135,013	198,592		20	115,014	99,788	
	집수리	24	696,634	452,500		23	622,619	492,913	
	청소	44	347,020	371,014		44	363,030	401,183	
	기타	8	644,216	1,568,093		5	876,008	1,729,956	
	합계	176	622,442	1,331,996		176	655,146	1,530,917	

*p<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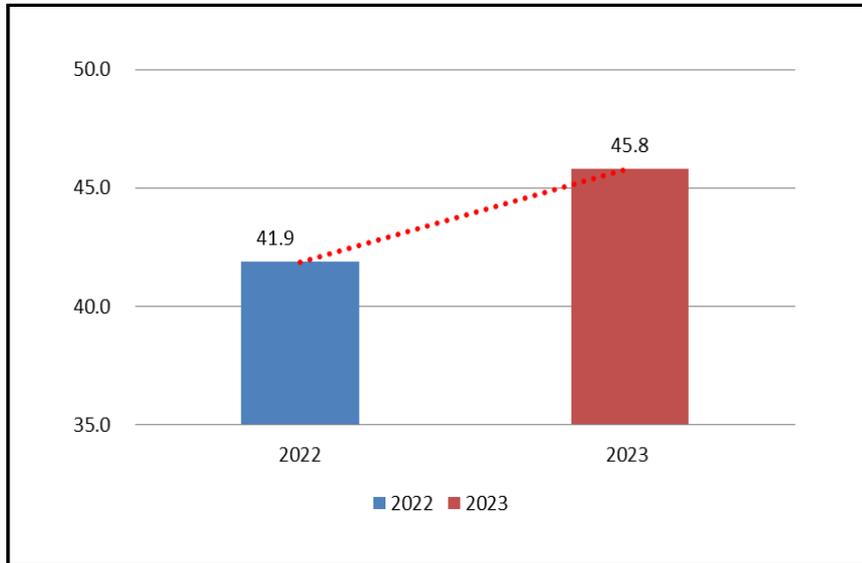
(3) 노동생산성⁷⁾

- 경기도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⁸⁾은 2022년 평균 41.9에서 2023년 평균 45.8로 약 1.09배 상승하였음
 - 노동 투입량인 종사자 수와 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노동 산출량인 총매출액의 증가분이 더 크기에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였음
 - 수급자(2022년 평균 152.9시간, 2023년 평균 154.8시간), 차상위자(2022년 평균 161.6시간, 2023년 평균 173.8시간), 비취약 계층(2022년 평균 163.8시간, 2023년 평균 165.9시간)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나 기타 취약계층(2022년 평균 162.9시간, 2023년 평균 159.3시간)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감소하였음

7)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에 대한 총매출액으로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연도별로 비교하기 위한 상대적 개념이기에 국가통계인 산업별 노동생산성지수와 비교가 불가하며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8) 당해연도 경기도 자활기업 총 매출액(천원) / 경기도 자활기업 총 종사자 수(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 비취약 계층) × 경기도 자활기업 총 노동시간(종사자 유형별)

〈그림 Ⅲ-6〉 연도별 경기도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



- 총 매출액은 사회형 자활기업이 더 컸으나 자체 고용 종사자 수도 사회형 자활기업이 더 많아서 노동생산성은 자립형 자활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형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에 약 1.11배 상승하였고, 자립형 자활기업은 1.81배 상승하였음

〈표 Ⅲ-33〉 자활기업 유형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총매출액	사회형	52	35.7	33.1	-1.496	48	39.7	49.1	-0.720
	자립형	95	45.2	43.0		93	49.0	81.8	
	합계	147	41.9	39.9		141	45.8	72.3	

*p<0.5, **p<0.01, ***p<0.001

-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노동생산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수, 총 매출액 등은 대체로 운영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영기간에 따른 노동생산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 운영기간이 5년 이하인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이 61.9로 가장 높았고, 2023년 운영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이 36.1로 가장 낮았음

〈표 Ⅲ-34〉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노동생산성	5년 이하	42	41.4	38.7	0.295	48	61.9	111.9	1.848
	6년~10년	49	38.9	41.9		41	36.1	42.5	
	11년 이상	56	44.9	39.6		52	38.6	32.0	
	합계	147	41.9	39.9		141	45.8	72.3	

*p<0.5, **p<0.01, ***p<0.001

- 경기도 자활기업 업종 중 유통 및 판매, 집수리, 배송 및 운전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서비스, 음식점, 생산, 청소, 기타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유통 및 판매 분야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87.1에서 2023년 113.4으로 약 1.30배 증가하였고, 배송 및 운전 분야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32.5에서 2023년 45.7로 약 1.41배 증가하였음
 - 집수리 분야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2022년 78.7에서 2023년 68.1로 다소 감소하였음
 -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의 총 매출액은 매우 높았으나 노동투입량 또한 많아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35〉 자활기업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

구분	2022년				2023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노동생산성	배송·운전	27	32.5	35.1	13.264***	26	45.7	77.0	3.648**
	사회서비스	15	15.7	9.0		15	16.9	10.1	
	생산	9	22.9	18.2		11	26.3	14.5	
	유통·판매	18	87.1	42.3		16	113.4	155.1	
	음식점	16	20.5	12.4		16	23.1	11.0	
	집수리	21	78.7	41.8		22	68.1	55.6	
	청소	37	30.7	31.0		32	29.7	33.1	
	기타	4	38.1	21.4		3	32.2	20.0	
	합계	147	41.9	39.9		141	45.8	72.3	

*p<0.5, **p<0.01, ***p<0.001

3. 자활기업 관련 전문가 FGI

1) FGI 개요

- 본 연구는 경기도 자활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과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 FGI는 ① 자활기업의 성과, ② 자활기업 운영 실태, ③ 자활기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FGI는 총 6회 실시하였으며, 매회 당 약 2시간이 소요되었음
 - FGI에 총 10명이 참여하였으며,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활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자활 분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었음
 - 인터뷰는 연구진의 질문에 따라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인터뷰를 녹취하였음
- FGI 내용을 분석한 결과 3개의 범주에서 총 11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음
 - 자활기업의 성과: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자활기업의 네트워크와 사회공헌

- 자활기업의 운영 실태: 자활기업 지원 현황, 자활기업의 생존, 업종에 따른 차이
- 자활기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자활기업 지원 방안. 자활기업 인력 수급 문제,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 접근성 제고, 홍보 방안 마련, 광역자활기업 지원

〈표 Ⅲ-36〉 FGI 참여자 특성

구분	소속	성별	연령	일시
A-1	자활기업(청소업)	남성	60대	24.05.20.
B-1	자활기업(자전거)	남성	40대	24.05.20.
C-1	학계전문가	남성	60대	24.05.22.
C-2	학계전문가	남성	40대	
D-1	자활기업(유통업)	남성	50대	24.05.23.
E-1	자활기업(식품)	여성	60대	24.05.23.
F-1	경기자활기업협회	남성	50대	24.06.21.
F-2	경기자활기업협회	남성	50대	
F-3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남성	50대	
F-4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여성	50대	

2) FGI 결과

□ 자활기업의 성과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비재정적 성과를 재정적 성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공헌 활동, 급여의 적정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활기업의 성과 평가가 낮더라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는 점도 평가되어야 함

현재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사회적 경제가 생겨날 때 썼던 방법으로 비재정적 성과를 재정적 성과로 변환하는 방식인데 보다 정확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물품 및 재정 후원 등을 환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비용편익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C-1)

단순 매출액 증가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매출이 중요하지만 자활기업의 정책적 목표는 수급자의 취업이다. (D-1)

자활기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에 한가지 지표로 모든 자활기업을 평가할 수 없다. 시장 진입형 자활기업은 성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은 정부가 정한 단가에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기에 재정적 성과가 나올 수 없다. (C-1)

자활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인데 이 법인에 투입된 자활기금 등 각종 공적 지원을 자활기업은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자산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하나의 쟁점 사항이었다. (D-1)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 측정보다 행정적 지표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다만 계량적 지표 말고도 자활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C-2)

급여를 적정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 취약계층한테 급여를 적정하게 준다면은 진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E-1)

자활은 말 그대로 자활이다. 누구를 고용하고 그 사람 임금을 얼마큼 주고 이런 것들은 다 남의 시선의 입장이다. 이 부분을 자활기업의 성과로 본다면 우수한 기업들 아니면 점수가 다 낮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점수 낮은 기업들 가치가 없다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활의 목적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F-2)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개량화시키기 어렵고, 성과는 수치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채워져야 한다. (F-1)

○ 자활기업의 네트워크와 사회공헌

- 자활기업들은 현재 활발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네트워크는 중요하며 필수적인 사항이기에 자활기업의 성과에 이를 포함하여야 함
 - 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반찬가게, 학교, 지자체 등 다 네트워킹하고 있다. 생각보다 네트워킹이 활발한 편이죠. 안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 (B-1)

정기적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회의록에 다 존재를 하니깐 다 확인이 가능할 텐데 소규모 네트워킹은 회의록 안 남긴다. ... 어차피 네트워크는 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인 요소로 이미 자리 잡았다. (B-2)

- 자활기업들은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회공헌은 실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취약계층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 갚아야지 환원을 해야죠. (A-1)

저희는 지역아동센터한테 이제 자전거를 기증하거나 기부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있다. (B-1)

어떤 물질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것만이 사회공헌이 아니다. 시간이 날 때 내가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자율방법 같은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방역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D-1)

자활기업은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자활정보시스템에 생각보다 데이터를 많이 담을 수가 없다. 저희 대표님들이 아직까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 데이터에 있는 사회공헌보다 훨씬 더 많이 사회공헌을 하실 텐데, 그 데이터는 아마 굉장히 축소되어 있을 것이다. (F-4)

□ 자활기업 운영 실태

○ 자활기업 지원 현황

- 창업 자금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불충분하며, 현재 창업 자금 지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현실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인건비 지원의 경우 지원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고,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의 경우 조건이 엄격하여 지원받기 어려움

저희가 이제 자활 기업으로 나왔을 당시에는요. 사업단에서 이제 매출 적립금에 퍼센트로 갖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적립금이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 사업단 인원이 13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창업으로 나올 수 있는 인원은 3명이었고 그래서 거의 갖고 나올 수가 없었죠. (B-1)

요즘은 창업 자금 지원이 많아졌지만 지역별로 필요한 금액 차이가 존재한다. 각 지자체별로 보면 어느 지자체는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금액으로 보증금조차 내기 힘들다. (E-1)

한시적 인건비 지금 새로 생긴 게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는 그냥 일반 노동력 보조하는 거고 행정 정도 하려면 전문 인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조건이 매우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 받을 만한 자활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 한시적인 인건비 쥐가면서 보호 기간이 3년 지나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A-1)

○ 자활기업의 생존

- 외부의 지원이 종료된 후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자체별 지원 내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 자활기업은 확장을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함

지금은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해줘도 자활사업단에서 안 나가는 상황이라 ... 오래된 자활기업을 왜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냐는 말들도 있지만 자활기업에게 연도별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E-1)

보통 7년이 맥시мум인 것 같다. 저희도 7년 차이긴 한데 ... 한시적 인건비가 끝나는 시점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 (B-1)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내역이 다르다. 한 지자체에서는 보증금에 집세도 내주는 지역이 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새로운 수급자가 들어와도 인건비 지원을 못 해주는 곳도 있다 (D-1)

자리 잡힌 자활기업이 오히려 더 자금 조달을 해야 될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낀다. 왜냐하면 확장을 해야 되니까 ... 그리고 신규 기업들은 요즘 창업 자금들을 많이 준다. (E-1)

- 자활기업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자활기업의 활동은 일종의 보호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지만 외부의 시선에서는 특혜로 오해될 수 있음

제가 볼 때 이게 이 시스템이 좀 불공평하다.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 양곡 업종은 나라에서 용역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B-1)

자활 같은 경우는 보호된 시장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점을 숨겨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오히려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한다. 왜냐하면 자활기업이 하는 역할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많다.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자활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B-2)

취약계층 일자리들은 결국 보호된 고용 시장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특혜가 아닌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 특혜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B-4)

공공 부문에 판로가 있는 자활기업이 확실히 더 크다. 아무래도 양곡 배달이라든지 이쪽이 기업도 더 크고 광역 기업도 있고 매출액도 당연히 크다. 공공 부문에 판로가 없는 영세한 기업들은 영세한데 공공 부문에 판로가 있는 게 기업과 대비해서 보게 되면 특혜가 아니나라는 오해가 생긴다. (B-3)

○ 업종에 따른 차이

-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할 시 업종별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다르므로 그 시기에 필요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이번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청소 관련 자활기업들은 많은 호황을 누렸지만 먹거리 관련 자활기업들은 다 죽어 나갔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역에 따라 업종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E-1)

업종별로 매출액 등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또 규모별로 또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F-3)

□ 자활기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자활기업 지원 방안

- 인턴 제도를 통해 자활기업을 간접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인턴 제도의 확대를 통해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인력 이동을 유인할 수 있음

보통 인턴형이 6개월 해주는데 연장하면 6개월이 된다. 그래서 12개월까지 된다.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사람을 지원해 주니까 금전적인 지원이나 마찬가지다. 한시적 인건비는 기업에서 4대 보험 등 자부담금이 있다. 근데 인턴형으로 나온 거는 일체 그런 게 없다. 단 보통 30~40만 원씩 센터로 인센티브만 제공해주면 된다. (E-1)

- 자활기업의 안정을 위해 탈수급 후 연장 자활 특례 연장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탈수급 되더라도 그 기업이 있으면 꾸준히 몇 년이면 몇 년 약속을 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 근데 자활 특례라고 해서 3년 밖에 연장이 안된다. ...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센터에 있으면서 이미 특례가 시작이 되는데, 자활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5년을 특례를 준다면 자활기업에 많이 가려고 할 것이다. (D-1)

○ 자활기업 인력 수급 문제

- 근로 능력 평가에 의해 인력 수급의 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기에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근로 능력 평가한 다음에 근로 능력 평가가 좋은 분들은 다 고용노동부 쪽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근로 능력 평가가 좀 안 좋은 분들만 자활 게이트웨이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다.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도 힘들고 훈련도 힘들고 일 자리 찾는 것도 힘들다. (A-1)

자활사업단에 계시는 수급자분들 위주로 취업을 시키고 싶다. 그러나 이제 그게 쉽지 않다. 편의점이나 카드 배송 이런 기업들에 취약계층 수급자분들 간다. 자활기업 대부분 힘들고 하니까 ... 저희도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B-1)

○ 교육 및 역량 강화

- 자활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 노무, 산업재해 등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은 필요함
- 다만 필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생기는 매출 공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저희도 이번에 좀 약간 반 강압적으로 가긴 했지만 재무 교육 이런 거 가서 했어요. 직히 뭐 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도 많고 ... 자활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도 많이 있지만. 업종 특성 상 하루하루 매출이 중요해서 받기 쉽지 않다. (B-1)

재정적 지원보다는 이 교육이랑 역량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 (A-1)

성장도 혹은 커가는 기업들은 크는데 작은 기업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뭔가 내가 대출을 받아서 커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전혀 안 가지는 것 같다. 그냥 한 끼 먹고 살고 하루 벌어 먹고 살자 이것만 유지하면 된다하는 기업들이 많다. (D-1)

대표들이 전체 3년 치 매출을 다 알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 근데 사실상 이거를 볼 줄 알고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대표들이 몇이나 될까? (E-1)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노무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의무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배울 게 너무 많고 바뀐 그런 법규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는 꼭 ... (E-1)

○ 정보 접근성 제고

- 자활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행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사업비 7년 만에 처음 받았다. 몰랐다. 정보를 모르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아서 신청하였다. 저 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다. (B-1)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인건비도 못 받고 나왔다. 진짜 정보가 없어서 못 받았고 그때는 그러다가 지금 힘든 시기를 다 지났다. (E-1)

행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힘들다. 사실 그게 엄두가 안 나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저희도 이번에 사업 개발비 한 번 신청했는데 되긴 됐지만 그 과정이 말도 못하게 힘들었다. (B-1)

○ 홍보 방안 마련

- 사회적 기업의 경우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지만 자활기업의 경우 이러한 홍보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회적 기업은 홍보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서도 판매 문의가 들어왔다. 자활기업도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만 뿌려줘도 예를 들어 복지부에 이러면 이 자활기업들이 무엇을 판매한다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협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판로 개척하는 데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E-1)

○ 광역자활기업 지원

- 일반 자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광역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자활기업의 규모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광역 자활기업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 운전자금 지원이 없으면, 없다면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F-2)

일반 자활기업 하나를 하는데 1명을 주는데 예를 들어 10개 이상의 10개 회원사가 있는 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그 회원사들의 행정이나 회계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한 명 가지고 안 된다. (F-1)

IV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IV 결론

1. 주요결과

□ 경기도 자활기업 분석 개요

-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추출한 경기도 자활기업 총 176개 기업(2022년 176개 기업, 2023년 176개 기업)을 분석
 - 2022년 10월 사업보고, 2023년 4월 사업보고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경기도 자활기업 일반 현황

- 2022년 경기도 자활기업은 총 176개소, 종사자는 총 2,682명으로 나타났고, 2023년 경기도 자활기업은 총 176개소, 종사자는 총 3,881명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체 고용 종사자 수는 2022년 평균 15.2명, 2023년 평균 22.1명으로 전국 자활기업의 종사자 평균 11.5명(이상아 외, 2023)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은 자립형 자활기업이 사회형 자활기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에는 사회형 자활기업이 54개소(30.7%), 자립형 자활기업이 122개소(69.3%)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사회형 자활기업이 53개소(30.1%), 자립형 자활기업이 123개소(69.9%)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평균 운영기간은 2022년 약 8.8년, 2023년 약 8.3년으로 나타났음
 - 전국 자활기업은 운영기간이 5년 이하인 약 51.1%, 10년 이상 자활기업이 약 20.8%

로(이상아 외, 2023) 경기도 자활기업의 평균 운영기간은 전국 자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소 관련 자활기업이 2022년과 2023년 모두 44개소(25.0%)로 가장 많았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 경기도 자활기업 자체 고용 종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비율은 2022년 약 44.3%에서 2023년 약 43.0%로 약간 감소하였음
 - 수급자, 차상위자 및 기타 취약계층을 포함한 비율은 2022년 약 76.4%, 2023년 약 76.5%로 나타났음
- 자립형 자활기업이 사회형 자활기업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음
 - 수급자, 차상위자 및 기타 취약계층을 포함한 비율은 사회형 자활기업은 2023년에 증가하였고, 자립형 자활기업은 2023년에 감소하였음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 차상위자 및 기타 취약계층을 포함한 비율도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유통 및 판매, 음식점, 배송 및 운전, 생산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 비율은 유통 및 판매, 음식점, 생산 분야에서 높았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 비율은 유통 및 판매, 음식점, 배송 및 운전, 생산 분야에서 높았으며, 기타 취약계층을 포함한 비율은 음식점, 유통 및 판매, 생산 분야에서 높았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종사자 월평균 임금

- 수급자의 월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상위자, 기타 취약계층, 비취약계층의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거의 없음
 - 수급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3년에 약 1,861,355.0원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차상위자

의 월평균 임금은 2023년 약 2,325,775.5원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기타 취약계층의 월평균 임금은 2023년 약 2,337,559.0원으로 약간 증가하였음

- 수급자와 비취약 계층은 사회형 자활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더 높았으며, 차상위자와 기타 취약계층은 자립형 자활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더 높았음
 - 수급자는 자립형 자활기업 임금이 2022년 1,763,476.4원에서 2023년 1,851,527.0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22년에는 운영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활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에는 운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수급자는 5년 이하의 자활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차상위자는 운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감소하였음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배송 및 운전 분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취약계층 및 미취약 계층은 집수리 분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회공헌 활동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평균 사회공헌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평균 사회공헌 금액은 감소하였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횟수는 2022년 평균 연 2.74회에서 2023년 평균 연 3.76회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금액은 2022년 평균 2,572,914.5원에서 2023년 1,064,275.8원으로 감소하였음
- 사회형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횟수 및 금액이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형 자활기업은 사회공헌 횟수가 2022년 7.4회에서 2023년 11.3로 증가하였으나 자립형 자활기업은 변화가 거의 없었고, 사회공헌 금액은 모두 감소하였음

- 자활기업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공헌 횟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 운영기간이 11년 이상인 자활기업은 2022년 5.74회에서 2023년 7.13회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회공헌 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 청소 분야 및 사회서비스 및 청소 분야의 사회공헌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공헌 금액은 크게 감소하였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사회공헌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사회공헌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 일자리 창출

-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는 2022년 평균 15.2명에서 2023년 평균 22.1명으로 약 1.45배 증가하였음
 -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고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기타 취약계층과 비취약 계층이 증가하였음
- 사회형 자활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고, 주로 기타 취약계층과 비취약 계층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자체 고용 종사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기간이 11년 이상인 자활기업에서 기타 취약계층과 비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 운영기간이 6년 이상인 자활기업의 수급자와 기타 취약계층 고용이 증가하였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수급자, 기타 취약계층 및 비취약계층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 차상위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전체 고용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 매출성과

-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2023년에 약 1.05배 상승하였음
 - 서울시 자활기업의 총매출액과 비교하면 2022년 기준 경기도가 약 3.14배 많았음
- 사회형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자립형 자활기업의 매출액보다 약 4.5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총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1년 이상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11년 미만의 자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사회서비스 분야가 가장 높았고, 음식점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 노동생산성

- 경기도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에 약 1.09배 상승하였음
 - 종사자 수와 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총 매출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상승하였음
- 총 매출액은 사회형 자활기업이 더 컸으나 노동생산성은 자립형 자활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노동생산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 업종 중 유통 및 판매, 집수리, 배송 및 운전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서비스, 음식점, 생산, 청소, 기타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FGI 결과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재정적 성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공헌 활동, 급여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의 네트워크와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기에 자활기업의 성과에 포함하여야 함
- 창업 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인건비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자활기업의 활동을 보호된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업종과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인턴 지원 기간 연장, 자활 특례 기간 연장을 늘려서 간접적 재정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확대하되 필수 교육 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공백 지원이 필요함
- 자활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행정 절차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함
- 광역자활기업의 경우 일반 자활기업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 전국 자활기업과 비교하면 경기도 자활기업의 규모와 고용은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 자활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자 함

□ 취약계층의 자활기업 유입 확대 지원

-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타 취약계층과 비취약 계층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자로서 자활기업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점을 방증함
- 자활기업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좀 더 자활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FGI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인력이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결과이기도 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활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확대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자활기업에 유입되는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경계선 지능인,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롭게 대두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업의 고유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의 안정적 인력 유입을 위해 자활기업 인턴 제도 확대 시행이 필요함
 -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의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데 영세한 자활기업의 경우 추가 재정 지출이 어렵기에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함
 - 영세한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받고 추가적인 재정 지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활기업 인턴 제도 확대 시행이 필요함
 - 자활기업 인턴 기간을 통해 각 자활기업에 맞는 인력을 육성할 수 있고, 인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지원

-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을수록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자활기업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인 고용, 임금 및 사회공헌 활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창업 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내용도 확대되고 있지만 운영 중인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음
 - 인건비 지원,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음
 - 인건비 지원 기간, 자활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간접적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활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채널 마련이 필요함

□ 자활기업 업종별·규모별의 맞춤형 지원

- 경기도 자활기업의 업종별로 자체 고용 인력 구성, 월평균 임금, 매출액 등이 상이하기에 업종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은 사회서비스 분야가 가장 높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들의 고용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임
 - 사회서비스 분야는 성장하고 있기에 고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 않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취약계층 고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고용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함
 - 유통 및 판매 분야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높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평균 임금도 높음
 - 유통 및 판매 분야에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
 - 음식점 분야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의 월평균 임금 상승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음식점 분야에 고용된 취약계층의 실질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경기 사이클에 따라 호황인 업종과 불황인 업종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시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는 광역자활기업은 5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많으나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 자활기업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광역자활기업의 규모에 맞게 일반 자활기업과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업종 다양성 기반 강화

- 경기도 자활기업 업종의 다양성을 늘려 편중된 자활기업 업종을 변화시키고 자활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자활기업은 청소, 배송 및 운전, 유통 및 판매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특정 지역 내 동일한 업종에서 자활기업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 창출 등 경쟁에서 유리한 다양한 업종의 개발과 기반 강화가 필요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호된 시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함
- 경기도 자활기업 업종 다양성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자활기업의 업종 다양성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최조순·홍서인, 2019)
 - 현재 광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와 같이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기에 이러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자활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교육, 사업 수요조사, 특화 업종 개발, 사업개발을 위한 컨설팅 등이 필요하며 이를 경기도 광역자활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자활센터는 3년 이하의 시작 단계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경기도 광역자활센터는 3년 이상 성숙기에 접어든 자활기업의 브랜딩,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함
 -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구분하여 자활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유사·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 관리 체계 지원

- 자활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 세무, 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만으로 부족할 경우 인력 지원이 필요함
 - 자활기업은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은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자활기업의 인사, 세무, 회계, 조직 운영 등을 자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자활사업 전담인력’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경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활기업의 행정 및 관리를 위한 ‘자활사업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활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자활기업 재무·회계지원 사업(가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최조순·홍서인, 2019)
- 경기도 자활기업 재무회계 지원 사업은 재무관리 매출액 발생에 따른 세금부과액 등을 지원하여, 자활기업의 재무회계 관리 체계 정립을 지원
 - 현재 자활공유행정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자활기업 사무행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활기업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함
 - 자활공유행정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소규모 자활기업을 위해 경영 관리(회계, 자활정보시스템 처리, 사업계획 및 평가, 법인전환 지원 등), 세무, 회계, 공모사업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활기업 홍보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필요

- 자활기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활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함
- 사회적 기업의 경우 중앙부처, 지자체,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러한 홍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지만 자활기업의 경우 조직적 차원에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국자활기업협회,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차원에서 자활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활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분야의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민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는 시행하고 있으나 자활기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도 같이 시행되고 있기에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 경기광역자활센터(2023). 『2022년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자료집』, 경기광역자활센터.
- 김명화(2016). 『경북 여성 빈곤층의 자활기업 참여 실태와 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미현(2019). 『서울시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김정원(2012).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67-89.
- 김필두·최인수(2019). 『사회적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태동·신세찬·배창현(2022). “국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현황”, 『회계정보연구』 제40권 제2호, pp.59-82.
- 라준영·김수진·정소민·박성훈(2017).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성과 측정 매뉴얼』,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 보건복지부(2023). 『2023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광국(2021). “근로능력자 자활 및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92: 55-68.
- 신원식·김현주(2009).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유형”, 『사회보장연구』, 25(2): 171-193.
- 안수영(2015). 『충남 여성 빈곤층의 자활기업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오단이·박종연·엄재선·장윤선(2020). 『자활사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연구 -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SW복지재단·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상아·권소일·오영범·정희수·고은새·나수빈·김연수(2023).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 조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소정·손병돈·변금선(2012). 『자활사업 인프라 기능조정 및 역할 정립방안 연구』, 중앙자활센터.
- 최상미(2021). “자활사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소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조순·홍서인(2019). 『경기도 자활기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경기복지재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 「2023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자활기업협회(2024).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매뉴얼』, 한국자활기업협회.
-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및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2).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Miller & Hall(2013).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and Performance Measurement”, DOI: <https://doi.org/10.1080/14719037.2012.698857>
- UNEP(1991). 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 GRI(2023). Consoli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
- The SROI Network(2012). A guide to Social Return on Investment.
- PwC(2013). “Measuring total Impact: A new Language for Business Decisions: BACKGROUND RESEARCH PAPER,” p. 5. PwC.
- PwC(2015). Total Impact Measurement & Management (TIMM) and Monetization of Impacts. PwC.
- GIIRS 홈페이지 <https://giirs.org/>
-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 <http://evis.kei.re.kr/>